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9호 HYUNBULNEWS.COM 2026년 3월 11일(음력 1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대학 생활 시작은 불교와 함께"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 동아리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서강대 불교동아리 '혜명'이 3월 6일 교내 운동장 인근에서 신입 회원 모집 부스를 운영하며 새내기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부스에서는 부처님 말씀과 간식을 담은 뽑기 이벤트, 명상 프로그램, 염주 꿰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사진은 제연우 혜명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맨 오른쪽) 등이 홍보를 진행하는 모습. 글·사진=김내영 기자

본지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에 써 달라"

관음종 총무원에 기금 전달해
편집국원 십시일반 정성 모아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에게 여수령 본지 편집국장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 지원에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이 동참했다.

현대불교신문 편집국(국장 여수령)은 3월 4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을 예방하고 편집국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도각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홍경 스님, 사서실장 법룡 스님, 여수령 본지 편집국장, 송종원 관음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도각 스님은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아픈 역사이고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하루 속히 수몰된 유해를 발굴해 한국과 일본 유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관음종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와중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직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금액을 떠나 정성에 감복했다"면서 "언론에서 힘을 모아 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난다"고 전했다.

여 편집국장은 "일선에서 취재를 해 왔던 편집국 기자들도 관음종의 원력에 깊이 공감해 마음을 모으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연중캠페인을 통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수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관음종과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월 2일 협약을 체결하고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수습 지원 모금 계좌 : 우리은행 (재)대한불교관음종 1006-502-377562

韓불교 영향 아스카데라,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계종 주최 '한·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

2월 26일, 아스카데라 방문
사찰 창건에 기와 등 사용돼
백제·고구려 장인 다수 참여
7월 세계유산위서 등재 결정

일본 나라현=김내영 기자

한국불교와 깊은 역사·문화적 인연 속에 596년에 창건된 일본 최초의 본격 사찰 '아스카데라(飛鳥寺)'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아스카데라를 비롯해 궁전 터와 고분 등을 묶은 '아스카·후지와라 궁도(宮都)' 유적군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으며,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는 일본 불교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국불교의 전래와 한·일 불교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등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5~28일 주최한 '2026 한·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에 참가한 취재단은 2월 26일 일본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촌에 위치한 아스카데라를 찾아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연원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배경을 살폈다.

아스카데라 주지 우에지마 호쇼 스님은 "(아스카데라는) 일본 최초로 주춧돌을 사용한 초석 건물이며 백제 장인들을 데려와 최초로 기와를 얹은 사찰"이라며 "목조건축 중심이던 일본 사찰에 전환점을 이룬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아스카데라에 들어간 기와만도 20여 만 장에 달한다.



일본 최초 본격 사찰 아스카데라 전경.

실제 아스카데라 창건에는 백제에서 건너온 스님과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불사리(佛舍利)와 함께 혜총(慧聰)을 비롯한 여섯 명의 승려와 사공(寺工) 태량미태(太良未太)와 문가고자(文賈古子), 노반박사(鑪盤博士)인 장덕백매순(將德白昧淳), 와박사(瓦博士)인 마나문노(麻奈文奴), 양귀문(陽貴文), 능귀문(悾貴文), 석마제미(昔麻帝彌) 등 네 사람, 그리고 화공(畵工) 백가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소가 가문이 백제와 긴밀한 외교·기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기와 제작과 문양 구성에서도 백제 양식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스카데라는 백제뿐 아니라 고구려 영향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웅전에 봉안된 아스카대불(飛鳥大佛)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높이 약 3m 규모다. 605년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 소가노 우마코 등의 발원으로 시작돼 609년 구라쓰쿠리노 도리(도리 불사)라는 백제 출신 장인이 조성했다. 불상 제작에는 동 15t과 황금 30kg이 사용됐는데, 이 중 황금 15kg은 고구려 대흥왕(영양왕)이 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존불의 온화한 상호와 부드러운 조형에서 대륙계 불상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한반도 장인들의 참여 속에 제작된 결과로 분석된다. 10면에 계속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미얀마 사원학교에 정수시설을"

아난다밋다 학교에 7번째 설치 예정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에 함께할 후원자를 찾는다.

2024년부터 캠페인을 시작한 양 기관은 현재까지 미얀마에 정수시설 6대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7번째 정수시설은 '미얀마 아난다밋다 사원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며 최근 현지 지역 조사를 마쳤다.

미얀마 양곤 이스트 다곤 타운십에 위치한 아난다밋다 사원학교는 621명이 재학 중이다. 지하수 관정이 있지만 정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석회 성분이 대량 포함돼 있어 빗물을 모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 환경 개선을 위해 스님들이 나서 알아보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설치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로터스월드는 하나의 정수시설을 최대한 많은 수혜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시설을 개방형 구조로 설치, 인근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다.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완공 후에도 시설 유지·보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지역 주민과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소모성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사전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가장 정수시설이 필요하고 열악한 현장과 함께 하겠다"면서 "확실한 사후 관리를 약속하며 후원자의 기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임은호 기자



여야 불자 의원들 "화합·상생 정치" 다짐

3월 4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
진우 스님 등 100여 명 동참
"정치인, '마음 안정'이 중요"
덕수 스님·능원 정사, 발전기금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이헌승 정각회장, 김영배 수석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참석 대중들과 선명상 실참 시간을 가졌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연기의 지혜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발원문 중에서)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열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정각회(회장 이헌승)가 3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2026)년 신춘법회'를 봉행했다. 1983년 창립한 국회정각회는 40여 년간 여야를 초월해 신행 활동을 이어오며 상생 정치의 길을 모색해 왔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개회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헌승 회장은 "부처님께서는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일을 행하며, 화합하여 흩어질 때 나라가 번영한다고 일깨워 주셨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가의 쇠퇴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음을 모아 화쟁의 정치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정치인에게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멘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올 수 없고, 좋은 생각도 떠오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을 줄여 나가면 감정이 순화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며 "그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걸림 없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이헌승 정각회장, 김영배 수석부회장과 단상에 올라 참석 대중들과 선명상 실참 시간을 가졌다.

협치와 소통을 기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지금이 불교의 화쟁과 자타불이 정신을 되새길 때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오직 국민과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화합이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래전부터 스님들은 '산감'이라는 소임을 두고 산을 지켜 왔고, 문화유산 보존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역할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불교와의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교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챙긴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여야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며 "서로의 다름을 배제하지 않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국회정각회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은 이수진 국회정각회 간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자비의 마음으로 국민을 받들 것 △초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스스로 경책하며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진우 스님 "AI활용·선명상 보급에 역점"

3월 5일 직할교구종회서
"선명상 포교 관심" 당부
올해 사업예산 등 의결해

"종단은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수행과 전법의 본질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 종단은 'AI의 올바른 활용과 선명상 체계적 보급'에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시대에 맞는 종무행정과 전법 포교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차 직할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진우 스님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만 그 안에 자비와 지혜의 방향을 담는다면 전법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경전과 선어록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하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명상을 통한 대중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면서 "어렵고 관념적인 수행에 머무르기보다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종무평가 우수 사찰 표창과 모범종무원상을 시상했다.



종무평가 우수 사찰에는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과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이 표창을 받았으며 유영란 용화사 재무팀장, 이상무 전등사 시설영선팀장은 모범종무원상을 받았다.

이날 직할교구종회에서는 △2025년도 직할교구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의 건 △2026년도 직할교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직할교구 상임위원 선출의 건 △승려복지 교구분담금 배정의 건 등을 상정·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할교구 예산은 분담금회계 예산 18억 8080만원, 경상회계 예산 4억 6765만원, 특별회계 예산 34억395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직할교구 상임위원으로는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 △정수사 주지 성원 스님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원통사 주지 석중 스님 △학도암 주지 현무 스님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 △정향사 주지 지홍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소림사 주지 정관 스님이 선출됐다.

신중일 기자

관음종,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 임명

종정 홍파 스님, 2월 25일 임명장 수여

관음종 총무원장에 현 직무대행 도각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관음종은 "종단 종헌·종법에 따라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가 2월 25일 도각 스님에게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관음종 종헌·종법에는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에 따라 도각 스님은 지난 1월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법명 스님의 잔여임기인 8월까지 총무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 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1990년 낙산묘각사에서 홍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1992년 죽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낙산묘각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6안거를 성만했으며 2020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개산조 태허 조사 선암사 탑비조성 집행위원장, 관음종 총무부장 및 총무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와 진주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3월 31일 개원

제237회 임시회 5일 회기
9개월만에 기념관서 개회



불기 2569(2025)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237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한다. 지난해 6월 화재 발생 후 9개월 만에 기념관에서 종회가 열리게 된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4월 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안건 접수는 3월 24일, 종책질의는 3월 26일에 마감된다.

당초 중앙종회는 3월 24일 임시회 개회를 검토했으나 국제회의장 공사 마무리와 사용 승인 절차 문제로 일정을 연기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국제회의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화재 사고 이후 사용을 위해 사전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다"며 "집기 설치와 절차 등을 고려하면 31일 개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상소 첫 심리

재심호계원 3월 18일 속행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상소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렸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정묵 스님)은 3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8차 심판부를 열고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상소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했다.

이날 심리는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증거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호계원은 오는 3월 18일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화쟁 사상, 사회 갈등 치유 기제 될 수 있어”

〈機制〉

조계종 화쟁위, 3월 4일 세미나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김희옥 총장 ‘화쟁 헌법 가치’ 발제
“헌법 가치 부합 통합 정치 실천”
정치·경제·사회 갈등 해소 제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쟁(和諍),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계 원로와 학자, 언론인, 법조인들이 참여한 토론 모습.

불교 화쟁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만 스님)는 3월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쟁(和諍),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화쟁 방법을 살피기 위해 준비됐다.

세미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화쟁위원회 위원장 정만 스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와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화쟁은 서로 다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면서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지혜이며, 분열을 덮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가 원효 스님의 원융회통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되길 염원했다.

정만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쟁은 다름을 껴안는 중도의 실천이자 경청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수행”이라며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 서로 듣지 않는 현실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허물을 살피는 데서 화쟁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와 사회도 안정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정치와 경제·사회 영역에서 화쟁 모델을 제시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화쟁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순간에도 부처님 앞에서는 한 명의 불자로서 마주 앉아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고자 정진을 이어 왔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국회정각회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공존과 화합의 길을 넓혀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불자회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최근 인공지능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답을 내놓기 위해 다른 관점을 가진 매체와 논의해 답을 표현한다”면서 “인공지능에 화쟁정신이 녹아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신하고 복잡한 사람들과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화쟁도구’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은 ‘화쟁사상과 헌법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김 전 총장은 “대한민국 공동체 유지·존속과 통합이라는 헌법 정신·헌법적 가치와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행복추구·자기결정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정신이 같은 지점에 있다”면서 화쟁사상과 헌법의 가치를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의 갈등 수준을 수치로 나타내는 ‘갈등 지표’를 언급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 심화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갈등지수가 높은 반면 갈등관리 역량은 낮은 현실을 지적한 김 전 총장은 “화쟁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機制, Mechanism)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치와 공존의 정치’ ‘공정과 연대의 사회’를 주제로 정계 원로와 학자, 언론인, 법조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입법권의 한계,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신뢰 회복 등을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다름을 인정하되 공동체의 존속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더 큰 가치 아래에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 국보 된다

국가유산청, 3월 4일 예고
불교유산 보물 지정 잇달아



조선 전기 동종 완성작으로 평가받는 ‘남양주 봉선사 동종〈사진〉’이 국보로 승격·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3월 4일 “조선 전기 대형 동종 ‘남양주 봉선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시대 상감 청자인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조선 시대 초상화인 ‘유효걸 초상 및 궤’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제8대 국왕 예종이 부왕(父王)의 명복을 빌고자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해 모신 동종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한국 동종의 문양 요소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이운 없이 제작 당시의 봉안처인 봉선사 종각에 그대로 봉안돼 있고, 한국 동종의 양식사에서 조선시대 동종의 전형을 완성한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예고한 ‘남양주 봉선사 동종’,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보·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전법단 11개 분야 단장 임명

진우 스님, 3월 5일 임명장
“불교 중흥 탄탄한 밑거름”

조계종 전법단(총재 진우 스님, 총무원장)을 이끌어 갈 전법단장들이 임명됐다.

진우 스님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 11개 전법단의 단장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전법포교 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전법단장 스님들은 병원전법단장 지인 스님, 경찰전법단장 담화 스님, 신도시전법단장 도봉 스님, 청년대학생전법단장 능원 스님,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 장애인전법단장 해성 스님, 체육인전법단장 무경 스님, 국제전법단장 문종 스님, 연예인전법단장 우봉 스님, 인천강화연합(인천) 단장 성안 스님, 인천강화연합(강화) 단장 여암 스님이다.

진우 스님은 “스님의 역량을 극대화해 전법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에서 많이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불교중흥에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각 전법단별 현황과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은호 기자



3월 5일 전법단장으로 임명된 스님들이 진우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올해 회원장 본격 실행”

〈葬〉

3월 5일, 운영위원회서 계획 공유
방문상담서비스 프로그램 진행도



전국비구니회는 3월 5일 서울 법룡사 메따공연장에서 ‘제3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2025년 한 해 동안 준비한 ‘전국비구니회원장’이 올해 본격 실행된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5일 서울 법룡사 메따공연장에서 ‘제3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비구니회원장’ 실행을 공식화했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노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봄부터 장례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평생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공동체 안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발원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매월 TF팀 회의를 열어 올해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대비를 해왔고 9월에는 8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실행을 준비했다.

올해 1월, 기금관리위원회와 장례봉행위원회, 전화방문상담서비스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장들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시행규칙 하부내용에 대해서도 회칙제개정위원회와 연계해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회원장 조직도에 따라 전화방문상담서비스위원회의 활동도 본격 가동된다. 서비스에 앞서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지회스님에게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복지정책위원회의 조정안 모색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함께 논의된 회칙개정의 건에서는 원로회 원로의원을 25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개정키로 했다. 임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날 회장 광용 스님은 회의에 앞서 중앙지회와 서울지회 등 6개 지회 신임 운영위원과 법룡사 총무 정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 2026 총회는 3월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임은호 기자





“국민 마음운동” 명상 실천 공동체 ‘시동’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2회 포럼, 명상인 시상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 확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는 2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진행된 기념 촬영.

“명상이 특별한 수행이 아닌 우리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쉼표이자 마음운동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우 스님 인사말 中)

조계종이 중심이 돼 결성된 명상실천 공동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년에 2회 명상포럼을 비롯해 명상 문화 진흥에 기여한 인물, 단체, 도서를 시상하는 문화상을 제정하는 등 명상 대중화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조직 운영 방안과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결성된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국민 정신건강을 진흥하는 ‘명상 실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명상을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것”이라며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는 소통과 공감을 위한 든든한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통해 구축된 연대의 힘은 사회의 분열을 막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위대한 여정의 실질적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출범한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명상 단체 및 학회, 정치계,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명상 공동체다. 진우 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윤종모 대한성공회 주교, 이경열 원불교 교무, 박도현 한국명상학회장, 원승희 대한명상의학회장, 조승래 국회 마음챙김포럼 대표 등 7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으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선원수좌회장 불산 스님, 주호영 국회의부장 등 25명이, 부위원장으로는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으로는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 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인성연구소장 혜주 스님,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등 16명이 맡는다.

이날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조직 운영 방안과 연간 사업을 확정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운영 통장 개설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 등록을 진행하며 임원진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납부받기로 했다.

올해 주요 연간 사업으로는 하지(6월)와 동지(12월)에 맞춰 명상포럼이 2회 개최된다. 세계 명상의 날인 12월 21일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올해 기념행사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장소는 조계종·원불교·정토회 등 소속 기관 및 단체의 대여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19~21일까지를 명상 주간으로 지정해 단체별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기념행사부터는 명상 문화 진흥에 힘쓴 인물과 단체, 도서를 시상하는 문화상을 제정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군불총 26주년 기념법회…“호국불교 계승” 다짐

2월 28일, 국방부 원광사서 봉행
김광민 준장 등 유공자 9명 포상



국군불교총신도회는 2월 28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창립 제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국운융창과 호국불교 전통 계승을 발원했다.

국군 불자들의 신행 구심점인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국운융창과 호국불교 전통 계승 염원이 담긴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총)는 2월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원광사에서 ‘창립 제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군불총의 노고를 치하했다. 스님은 “지난 26년 동안 군불총은 군불교의 든든한 뿌리이자 버팀목이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당을 지키고 장병들의 신행을 도운 원력이 오늘의 군불교를 있게 한 힘”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병과 군인 가족들에게 따뜻한 의지처가 되고, 군승 법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유공자 포상에서는 군불교 발전에 헌신한 9명의 불자가 상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인 공적상은 김광민 해군본부 준장(대리수상)이, 전법상은 손병진 국제평화지원단 원사와 최병민 미8군 한국군지원단 상사가 수상했다. 또 정정구 3사단 상사와 최재열 19전투비행단 상사, 최순례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 등 3명이 군종교구장상(원력상)을, 박상천 학군교 수원대 학군단 중령 등 3명이 국군불교총신도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제4대 군종교구장을 지낸 혜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법(正法)’을 강조하며 복잡한 지식보다 내면의 부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했다. 스님은 “깨달음이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갖춰진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거울을 닦듯 마음의 때를 벗겨 내는 수행의 자세를 당부했다.

군불총 부회장 강동구 중장은 봉행사에서 “군불총은 특수한 군 환경 속에서 불법을 전하고 장병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병 신앙심 고취와 군불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들은 최훈 군불총 사무총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 “호국불교 전통을 이어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물러서는 일이 없고, 오직 국가와 민족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큰 용맹심을 갖추게 해 달라”고 서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46회 만해백일장

3월 29일 서울 동국대서
3월 17일까지 사전 접수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숭고한 문학 정신을 기리는 백일장이 열린다.

KYBA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길수, 이하 대불청)는 3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제46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백일장은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은 물론 국군장병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참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참가 분야는 시·시조와 산문으로 나뉘며 시제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접수는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대불청 홈페이지(kyba.org)를 통해 사전 접수로만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창립 2주년 교수붓다회 ‘시도·국제 전법위원회’ 출범

2월 27일, 동국대 정각원서 출범식
17개 지역 교수 · 학생 등으로 구성


교수붓다회 임원들이 2월 27일 열린 ‘시도 전법위원회 · 국제 전법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법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불자교수 신행모임으로 시작해 창립 2주년을 맞은 교수붓다회 전법해(회장 김순남, 신한대)가 전국 시도는 물론 국제 전법위원회를 출범했다. 불자교수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전국 청년대학생 전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수붓다회는 2월 27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시도 전법위원회·국제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교수붓다회는 이날 출범한 △시도 전법위원회(위원장 이성원, 영남대) △국제전법위원회(위원장 최창영, 신한대)를 비롯해 △군전법위원회(위원장 김영주, 한양대 에리카) △교정기관전법위원회(위원장 송병국, 숭실대) △학습위원회(위원장 박수호, 중앙승가대) △수행위원회(위원장 송민서, 동국대), △성지순례위원회(위원장 홍성철, 경기대 서울캠), △조직재정발전위원회(위원장 윤탁, 동국대) 등 8개 상설위원회를 갖추고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지도교수 위원, 교수 위원, 학생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도전법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17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각 지역 거점 대학의 교수들을 위원장으로 두고 활동하도록 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역 전법의 중추적 역할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게 지역의 교수 포교 및 대학생 포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순남 회장은 “교수붓다회는 창립 이후 서울·경기 지역 10개 대학 지원뿐 아니라 지역협의체를 통해 전국으로 교수 포교와 대학생 전법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고 그 결과로 ‘시도·국제 전법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풀뿌리 전법부터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전법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교수붓다회의 활동 지평을 넓히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법 활동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붓다회는 올해 각 위원회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직재정발전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승격 △홈페이지 구축 △시도단위 전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시도단위 출범식 지원금 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인도불교 부흥 염원 423Km 도보순례 회향

2월 2일~3월 1일 남인도 횡단
태국·인도서 사부대중 70명 참여


인도불교 부흥을 위해 도보순례 중인 스님들. 사진 출처=데칸 크로니클

태국과 인도에서 모인 사부대중이 인도불교의 부흥을 촉구하며 진행한 423km의 도보순례 ‘담마 파다야트라(Dhamma padayatra)’가 무사히 회향했다. 남인도의 여러 주를 가로지르는 이 도보 순례에 대해 3월 1일 인도의 ‘더 힌두’와 ‘데칸 크로니클’ 등 현지 언론들이 집중 보도했다.

태국과 인도에서 모인 70명의 순례단은 3월 1일 나가르주나 사가르의 부다바남 공원에 도착해 성대한 회향식을 봉행했다. 지난 2월 2일 카르나타카주 칼라부르기의 싯다르타 붓다 비하라 사원에서 시작된 도보 순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남인도의 광활한 주(州)를 넘나드는 423km의 여정으로 이어졌다.

순례단은 태국의 승가 프로젝트 책임자인 프라 송샤 코비도 스님이 이끌고 인도의 가간 말릭 재단 가간 말릭 회장이 조직했다. 이번 순례는 주최 측이 중인도의 마하라슈트라와 북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도보순례로 남인도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인도 각지에서 도보순례를 이어 가는 것에 대해 “지리적, 정신적으로 인도의 여러 지역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순례에는 60명의 태국 비구스님들과 10명의 인도 재가신자들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이번 도보순례는 평생을 걸어 다니며 설법한 부처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순례단의 하루 일정에 대해 “순례단은 하루 평균 6시간씩 걸었으며, 비구계에서 규정한 생필품 등 약 8kg의 개인 소지품을 직접 짊어졌다. 오후 불식을 준수해 참가자들은 하루에 한 끼의 공양만을 했다”고 전했다.

순례단은 경로 중 다양한 종교 공동체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주최 측은 “모스크, 힌두사원, 기독교 기관뿐 아니라 시크교도들이 순례단을 환영하며 음식과 휴식, 격려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 속 종교 간의 화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회향지인 붓다바남 공원의 마하스투파 불탑에 도착한 순례단은 현지 특별 담당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순례단은 태국에서부터 순례 기간 동안 함께한 불상을 대탑에 봉안했고, 현지 불교도들은 순례단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식을 봉행했다.

순례단은 회향식에서 “순례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포교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례단을 조직한 가간 말릭 회장은 “해외 많은 불교도들이 인도를 선망하지만 정작 인도 내에서는 불교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미하다”며 “순례를 통해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진행

3월부터 권역별 2박 3일도
사찰 당 3인 이내 신청 가능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이 사찰음식 소임자들의 전문성과 조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국 사찰의 사찰음식 소임자와 템플스테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찰음식 소임의 이해 등 이론 교육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사찰음식 시연 및 실습이 병행된다.

특히 올해 교육은 전년도와 달리 일부 권역에 2박 3일 집중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이론과 실습을 보다 심화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사찰 당 최대 3인 이내로 접수 가능하고 반드시 소속 사찰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조계종과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이메일(wonseok@templestay.com)로 제출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석림동문회, 졸업생 환송·신입생 환영회

2월 27일 조계사 관음전서
회장직 담화 스님이 이행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돈관 스님)는 2월 27일 서울 종로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6년 동국대 석림회 졸업생 환송회·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는 올해 봄 학기에 졸업해 일선 현장에서 수행과 포교를 이어 가는 59기 졸업생 4명 스님(서울캠 3명, WISE캠 1명)을 축하하고 63기 신입생 15명(서울캠 9명, WISE캠 6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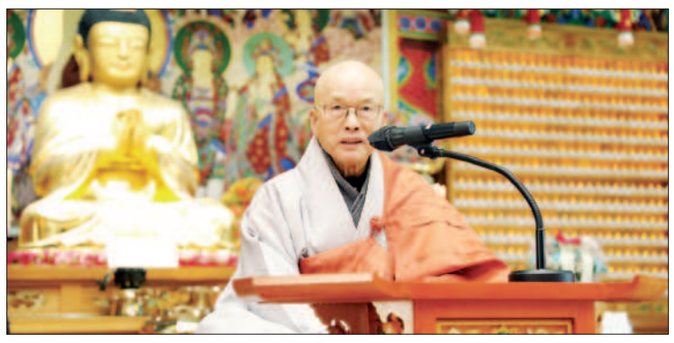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이날 실질적인 동문회장 역할을 동문회 상임부회장인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에게 이양할 의사를 밝혔다. 담화 스님의 공식적인 취임은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돈관 스님은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다 보니 동문회를 돌볼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활동력 있는 담화 스님이 동문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 스님은 “어른 스님들의 생각을 받들어 실질적으로 이사장 스님을 대신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석림동문회는 2026년 석림회 소임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59기 졸업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전했다. 또한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인사를 받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다시 수행으로”…봉선사 80일의 기록


반결제일인 2월 7일 봉선사 보림선원 유나 의정 스님이 대중에게 화두첩을 전달하고 소참법문을 했다.


동참 대중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청풍루에서 참선정진을 했다.


정진하는 대중들(왼쪽)과 회향식에서 소감 나누기를 하는 모습.




봉선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80여 일 동안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동안거 참선정진’을 진행했다. 사진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의 정진 모습.


매주 토요일에는 광릉숲 6km 구간을 걷는 묵언 명상이 진행됐다.


2월 28일 열린 동안거 참선정진 회향식.

봉선사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동안거 참선정진’

호산 스님 “대중과 함께 정진”
12월 9일 입재…매일 저녁 참선
매주 토요일 광릉숲 묵언 명상
반결제, 의정 스님 ‘화두첩’ 수여
2월 28일 회향 ‘수행공동체’ 모범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겨울 저녁 공기가 매섭던 지난해 12월 9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 청풍루에 50여 명의 불자들이 가부좌를 틀었다. 오후 6시 30분을 알리는 종성 뒤로, 도량을 가르는 죽비 소리가 울렸다.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동안거 참선정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참선정진’은 호산 스님이 취임 후 매년 안거 때마다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지만, 이번엔 그 의미가 남달랐다.

봉선사는 흔히 경기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세조의 능침사찰, 교종본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봉선사의 뿌리는 교학에만 머물지 않는다. 교종본찰의 종풍 위에 선종의 수행 정신을 함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봉선사다.

특히 2025년 동안거와 2026년 하안거는 선명상센터 완공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행과 포교,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상월결사 정신을 잇다

입재식에서 호산 스님은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회고했다. 혹한 속 하루 한 끼 공양, 14시간 이상 정진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호산 스님은 “그때의 간절함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전법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대중과 함께 정진하는 힘으로 교구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스님의 선언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안거 기간 산문 밖 출입을 최소화하고 아침에는 ‘우리말 금강경 특별 정진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청풍루에서 불자들과 좌복에 앉았다. 교구장 스님이 직접 이끄는 안거는 그 자체로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기본으로 돌아가다…간화선 교육

입재 후 첫 일주일은 간화선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참선 자세와 호흡, 화두 드는 법 등을 다시 짚었다. 초심자에게는 입문의 시간, 오랜 신도들에겐 점검의 시간이었다.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 30분이면 청풍루에는 퇴근길 직장인과 수업을 마친 학생, 80대 노보살님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고요함 속에서 오후 8시까지 정진을 이어 갔다. 첫 주 법문 이후 3주간은 실참 위주로 진행됐다. 말은 줄고, 좌선 시간은 깊어졌다. 다시 일주일간 법문을 듣고, 또다시 실참. 호흡과 화두가 일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광릉숲을 걷는 90분, 묵언 명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정진이 시작됐다. 광릉숲 6km 구간을 90분간 걷는 묵언 명상이다. 1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른 행렬이었다. 적게는 50명부터 많게는 80명이 참석했다. 2월 21일 진행된 마지막 걷기 명상에는 상월청년회와 상월청년합창단도 함께했다.

눈이 얼어붙은 겨울 숲길은 미끄러웠다. 호산 스님을 선두로 사미 스님들이 앞뒤에서 대중을 외호하며 길을 살폈다. 보림선원을 한 바퀴 돌아 산길로 발걸음을 옮기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열기가 올랐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규칙적인 숨소리, 나무 사이로 번지는 햇살. 걷기 명상은 곧 몸으로 화두를 드는 수행이었다.

2013년부터 봉선사 안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김길상원(84) 불자는 “매일 하는 참선도 좋지만, 이렇게 묵언 속에서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감격스럽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안거를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행의 불씨, 화두를 받다

반결제일인 2월 7일에는 봉선사 보림선원 유나 의정 스님(전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이 법상에 올랐다. 대중에게 직접 적은 화두첩을 전하기 위해서다.

“나를 주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주인공! 심(心)이라고도 하며 불성(佛性)이라고 하고 자성(自性)이라고도 하는 주인공이 무엇이고? 이 뭣고?”

의정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으로 점철된 세계를 근본에서 해결하고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은 스님에게 받은 화두를 수행의 불씨로 삼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해제, 그리고 또 다른 시작

2월 28일, 80여 일의 동안거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처음 좌복에 앉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호흡은 한결 고르게 내려앉았다. 매일 같이 울리던 죽비 소리, 광릉숲의 발걸음, 화두를 든 채 맞이한 저녁 시간이 수행의 시간으로 켜켜이 쌓였다.

회향식에서 호산 스님은 대중들에게 안거증과 참가증을 수여하고, 윤희수·김금순·김소자·이경애·권준희 불자에게는 정진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호산 스님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거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정진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안거는 해제를 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10분, 20분이라도 화두를 챙긴다면 하안거 때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구장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앉고 함께 걷고 함께 화두를 든 이번 동안거는 ‘수행공동체’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청풍루를 나서는 대중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품은 화두는 묵직했다.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봉선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수행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순 스님, 쉬운 우리말 '화엄경' 완역

3월 3일, 출판 기념 법회
10년 정진 '화엄경' 완역
수행과 번역 원력의 결실
"부처님 마음이 화엄세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이 원순 스님이 완역한 〈대방광불화엄경〉 부처님 전에 봉정하고 축하하고 있다.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장 원순 스님이 10년에 걸친 집필 끝에 〈대방광불화엄경〉을 완역하고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부산동명불원은 3월 3일 대웅전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출판 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원장 원순 스님을 비롯해 이시영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이사장, 김성규·안수근·강석진·이욱태 이사, 성재곤 신도회장, 이원옥·이상수 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원순 스님은 편찬사를 통해 화엄의 핵심을 '마음'으로 설명했다.

스님은 "화엄세계는 각자가 제 모습대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라며 "화엄의 이치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어렵다'고 말하며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부처님 앞에 서 있는데서 멈추지 말고,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마음을 지니고 살면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 세상을 밝히게 된다"며 "불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다만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왔을 뿐"이라며 "한 가지 마음을 두고 정진하다 보니 자연스레 원고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시영 이사장은 축사에서 경전 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불자들뿐 아니라 스님들 사이에서도 경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원장 스님께서는 이러한 인식의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새롭게 정리하고 엮으셨다"고 밝혔다.

성재곤 신도회장도 축사를 통해 원순 스님의 수행과 원력을 강조했다. 성 회장은 "긴 세월 동안 오직 수행과 번역에만 매진해 이 대업을 성취하신 원장 스님과 그 기쁨을 함께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화엄경〉은 그 방대함과 깊이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는 높은 산과 같은 경전이었다"며 "그러나 원장 스님의 멈추지 않는 정진과 깊은 원력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간행된 〈화엄경〉은 전 12권으로 엮였다. 한문 원전을 직역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층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어법에 맞춰 재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난해한 교리 체계와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오랫동안 '읽기 어려운 경전'으로 인식돼 왔던 〈화엄경〉을 독서 가능한 텍스트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순 스님은 198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이후 해인사·송광사·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경전 번역에도 힘써 〈명추회요〉를 옮긴 〈마음을 바로 봅시다〉를 비롯해 〈한글 원각경〉, 〈선요〉, 〈서장〉, 〈육조단경〉, 〈몽산법어〉 등을 번역했다.

이번 〈화엄경〉 완역은 교학과 수행, 포교를 연결한 작업이라고 평가된다. 일부 수행자 중심의 텍스트에서 벗어나, 신행 대중과 교육 현장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향후 학술 연구와 강설, 수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07주년 3.1절, 불교 독립운동을 기억합니다"

범어사, 3 · 1운동 기념식 봉행
"호국 · 독립정신 받들 것" 다짐


범어사는 3월 1일 범어사 3 · 1운동 유공비 앞에서 '3 · 1운동 107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범어사 스님들과 명정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개된 3·1만세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호국·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3월 1일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3·1운동 107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율학승가대학원장 원창 스님, 재무국장 도은 스님, 승가대학 학감 지원 스님을 비롯해 백명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추도사에서 "오늘 범어사 3·1운동 107주년 기념식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향기를 기억하고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자리"라며 "범어사는 부산 3·1운동을 주도한 지방학림과 명정학교가 있던 곳으로, 불교개혁과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곧 독립 정신과 3·1운동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은 백명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범어사는 3·1운동 당시 스님들과 명정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되새기고 독립 정신을 후대에 이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축총림, 교·율·염불 전통 잇는 졸업식

3월 1일 설법전서…21명 졸업
계율 · 염불 · 교학 전통 잇는 법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율학과 염불, 교학을 아우르는 승가교육의 결실로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통도사는 3월 1일 설법전에서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제20회, 통도사 염불대학원 제6회, 통도사 승가대학 제69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영축율학승가대학원은 4명, 통도사 염불대학원은 13명, 승가대학은 4명의 졸업생을 각각 배출했다.

이날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반은 지난 3년간 역주한 〈사분율 행사초 자지기〉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혜명을 잇고자 발심 출가한 졸업생들이 수행 정진의 결실을 맺었다"고 축하했다.

율주 덕문 스님은 훈사에서 "자장율사의 지혜와 정신을 선양하며 이 시대를 밝히는 수행자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불대학원장 법산 스님은 "초심을 잃지 말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은 "수행자의 사명을 다해 세상을 밝히는 선지식으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총림 율학대학원·승가대학 졸업식

3월 2일 관음전서…9명 졸업
"동문 자긍심 갖고 정진하길"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3월 2일 관음전에서 '제45회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원 및 제66회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 1명, 연구과정 2명, 해인사 승가대학 6명 등 총 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율학승가대학원 유초 스님, 총무원장 교육상은 승가대학 견진 스님이 수상했다.

이날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승가대학장 원걸 스님에게 2026년 목적사업 특별활동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후학 양성과 수행도량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주지 혜일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강원과 율원의 틀을 벗어난다고 해서 해인사와의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어디서든 수행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동문회장 동진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해인사 승가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졸업생들이 교단과 사회 속에서 수행자의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지혜와 자비를 갖춘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분당 대광사 '명상집중수행 템플스테이'

2월 28~3월 1일, 좌선 · 행선 반복
정준영 교수 초빙 '알아차림' 정진



분당 대광사(주지 경혜 스님)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를 초빙해 '명상집중수행과정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대광사의 템플스테이는 명상 초심자를 위한 '내 마음 주인 되기' 과정과 중상급자를 위한 '명상집중수행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집중수행은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간 쉼 없이 좌선과 행선을 반복하는 고강도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5개 조로 나뉘어 정준영 교수와 단체 인터뷰를 통해 수행 중 겪는 통증이나 쏟아지는 졸음, 의문점 등을 즉각적으로 점검받으며 깊은 몰입을 이어갔다.

정준영 교수의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한 지도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어려운 위빠사나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줘 수행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대광사 주지 경혜 스님은 "앞으로도 일반인과 수행자 모두를 위한 명상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졸업·입학식

수행과 배움 잇는 교육 도량



천태종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 부산금강불교대학이 2월 28일 지관전에서 수료식과 졸업식, 입학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교법사과 32명, 불교학과 64명이 수료했으며, 신입생 70여 명이 입학했다.

학장 용암 스님은 교법사과 대표 허복식 학생과 불교학과 대표 김미영 학생에게 각각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길근 학생에게 천태종 교법사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입학허가와 신입생 선서가 진행됐으며, 불교학과와 교법사과정 수료생들은 발전기금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

용암 스님은 훈사에서 "졸업과 입학의 여정에서 마음의 분별을 거두고 기도정진을 통해 참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삼광한글학교 33회 졸업식 및 34회 입학식은 초등학력인정과정 9명, 중학학력인정과정 12명이 졸업했으며, 2026학년도에는 초등 15명, 중학 15명, 문해반 30명이 입학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범어사서 정기연합법회

2월 28일, 11개 대학 한자리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 이하 부산지부)가 2월 2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2월 정기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열린 이번 법회에는 부산지역 11개 대학 법우들이 함께 모여 청년대학생 전법과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희철 부산지부장은 "올해 템플스테이, 삼사순례, 연등 제작 등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겠다"며 "불국토 부산이 청년대학생 전법에 앞장서는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문을 맡은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관심과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깊어지는 불교, 공감의 불교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부처님 전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조계종聯,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3월 3일 태화강 특설무대서
향어 방생…자비의 쌀 나눔



울산불교조계종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3월 3일 태화강 국가정원 둔치 특설무대에서 울산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연합회와 남구청이 함께 뜻을 모은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향어 1500마리를 태화강에 방생하고, 백미 10kg 200포를 남구청에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혜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울산과 국가의 여러 어려움이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생의식을 마련했다"며 "가장 큰 방생은 욕심과 번뇌에 지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미물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웃까지 함께 보듬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태화강 둔치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성대히 봉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은 "방생은 불교의 생명 존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채권 부구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배려와 나눔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거 해제 후 만행은 동중선”

전국 총림 · 선원, 동안거 해제 법회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 해제 법회
성파 스님 법어, 정진 당부
총림·본사 등서 법회 열려

하성미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이동격 강원지사장

동안거 해제를 맞은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해제 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3월 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동안거 해제 법회 법어를 통해 수행의 본령을 설했다.

성파 스님은 “결제 기간 산문을 닫고 좌선에 전념하는 것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밝히는 정중선(靜中禪)”이라며 “해제 후 행각과 만행은 움직임 가운데서도 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 동중선(動中禪)”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중선과 동중선은 둘이 아니다”라며 “앉아 있든 움직이든 수행자는 언제나 공부 중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3월 2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치열한 정진을 마친 대중 스님들을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서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염불과 화두가 하나로 만나는 수행의 원리를 강조하며 “목에 피가 나도록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러면 화두가 제자리에 철커덕 장착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물건’이 확실해져야 하며,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그 자리를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설했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3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을 회향했다.

방장 현묵 스님은 해제 법어를 통해 수행자의 자세와 본참공안 참구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은 “그동안 정진 대중 스님들은 자신의 정진력에 의해서 결제에 들어서서 구순안거에 정진을 힘차게 해왔고 오늘 해제를 맞이하게 됐다”고 그간의 정진을 치하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3월 2일 보제루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방장 정여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동안거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정진을 격려하며 수행의 본질을 짚었다. 정여 스님은 “맑고 깨끗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잘 새겨보면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다”라며 “본래 내 마음에서 일어난 업의 작용일 뿐”이라고 설했다. 이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경계는 자신의 한 마음에서 분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스스로 만든 경계에 속거나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3월 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동안거 해제법회에서 법어를 설하고 있다.

태고종 유일 총림인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은 3월 3일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방장 지암 스님은 “정진하고 또 정진하되, 마음 바탕이 밝고 고요하게 하라”며 “불조의 뜻을 깊이 믿어 분명한 판단에 이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3월 3일 적광전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해제 법문은 탄허 대종사가 1982년 미국 홍법원 개원 법회에서 설한 법문으로 대신했다.

정념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산문을 나서는 걸음걸음이 보보시도량(步步是道場)이요, 보보등고(步步登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사, 보성 대선사 7주기 추모다례재

3월 2일 대웅전 등서 봉행



목우가풍(牧牛家風)으로 한국 불교의 수행 가풍을 이끌었던 조계총림 전 방장 범일당 보성 대선사의 7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2일 경내 대웅전과 부도전에서 방장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 영조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 스님을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무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 방장이신 보성 큰스님의 7주기를 맞아 원근에서 오신 말사 주지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내리는 촉촉한 봄비가 마치 큰 스님께서 내리시는 법문과도 같고, 우리의 번뇌를 식히는 감로의 법비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과 수행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보성 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전국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하며 선 수행에 매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지리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

3월 4일 각황전서 봉행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3월 4일 경내 각황전에서 ‘불기 2570년 병오년 지리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화엄사는 최근 입적한 문도 스님들을 함께 모신 합동부도탑을 조성한 뒤 매년 합동추모재를 통해 선대 스님들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고 문도 간 화합을 다지고 있다. 이날 추모재 역시 화엄사의 발전과 문중의 가풍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문도는 선대 대덕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이 모여 오늘의 가풍을 이루었다”며 “특히 어른 스님들께서 남기신 화합과 수행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도 대중이 함께 전법과 포교의 길을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 주지 덕문 스님의 원력으로 화엄사 다비장이 원만히 조성되면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자의 삶을 함께하는 수행 기반이 더욱 갖춰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문도 대중이 서로 화합하며 수행과 포교에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1차 교구종회 개최

2월 26일 처영기념관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2월 26일 처영기념관에서 ‘불기 2570(2026)년 제1차 교구종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교구종회는 의장 화평 스님을 비롯해 재적 의원 76명 중 49명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2025년 교구 회계 결산 보고, 제17교구 선거관리위원 선출, 2026년 연등축제 관련 보고 및 논의 등이 상정됐다.

교구종회의장 화평 스님은 개회사에서 “교구 일정상 필요한 회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교구 수행과 포교 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회는 불기 2569(2025)년 교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원만히 승인했다. 제17교구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교구장 스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구장 화평 스님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연등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유됐다. 봉축기간은 4월 25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30일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전북불교회관 등을 중심으로 연등축제 전담팀이 구성되어 업무 분장을 마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픔도 수행 승화…대웅전 복원 불사 추진”

지역 불교人 김제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

주지 취임 후 누전으로 소실
“안전 강화해 새롭게 세울 것”
둘레길, 템플스테이관 조성도

김제 망해사는 서해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망해사는 뜻하지 않는 시련을 겪고 있다. 최근 불의의 전기누전 사고로 발생한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망해사는 국가자연유산 명승 지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기대가 모아지던 시점이었다. 갑작스러운 재난은 도량과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은 “주지 소임을 맡은 직후 대웅전이 소실되는 상황을 맞았다”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명승 지정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책임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라며 “밤새 자책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님은 위기를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우림 스님은 “불이 법당을 태웠지만 신심까지 태울 수는 없다”며 “이 또한 무상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또 “형상은 사라졌지만 망해사의 정신은 남아 있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굳건한 수행 도량으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우림 스님은 대웅전 복원불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림 스님은 “대웅전 복원은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니다. 망해사의 역사와 불자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 양식을 살리면서도 안전을 강화해 후대에 물려줄 법당을 세우겠다”라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

숙원사업인 공양간과 템플스테이관 마련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림 스님은 “공양간은 대중이 함께 수행의 인연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불자와 지역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템플스테이관을 마련해 머무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새만금 시대에 걸맞은 체류형 신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둘레길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우림 스님은 “망해사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수행의 교과서”라며 “바다와 숲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해 걷는 수행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승의 가치를 살리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누구나 쉬어 가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집 태우며 한 해 액운 쫓고 행복 기원

전국 주요 사찰들 정원대보름 행사 열어

병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주요 사찰에서 액운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3월 3일 경내 범종루 마당과 일주문 주차장 일대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봉행했다.

행사는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달집 이운, 신중작법, 풍물 공연, 붓글씨 시연 퍼포먼스(박정민 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주지 호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올린 소원지들이 저 달과 불길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남양주시와 전 세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와 낙화축제가 잇달아 열렸다.

2월 28일 영평사 경내에서 진행된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주지 환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처럼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월 1일에는 **세종불교낙화법보존위원회(회장 원행 스님)**가 주최한 낙화축제가 열렸다. 이날 축제는 관람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낙화의 장엄함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자 500명을 모집해 진행됐다.

세종불교낙화법보존위원회장 원행 스님은 “밤하늘에 떨어지는 불꽃이 사바세계의 모든 번뇌를 태우고 대중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경내 연화지에서 방생법회를 열고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발원했다.

대원 스님은 법문에서 “비록 몇 마리의 미꾸라지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이 큰 복이 된다. 오늘의 방생 공덕이 모두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달집에 점화를 하고 있다.

천안 도광사(주지 탄문 스님)는 3월 1일 사찰 앞마당에서 ‘정월대보름 척사(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주지 탄문 스님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한마음으로 웃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절실하다고 느껴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 스님)는 2월 28일 논산 황포대교 금강변에서 ‘정월대보름 용왕대재 및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방생은 우리 마음속의 살생과 탐욕을 씻어내는 수행”이라며 “이 생명들이 자유를 찾듯 신도들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해 업장이 소멸하고 대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3월 2일 경내 할머니 당산나무와 일주문 앞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열고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발원했다.

주지 재안 스님은 “내소사 당산제는 불교와 민속신앙이 조화를 이루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부안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붓다, ‘자비의 짜장면’ 나눔 봉사

3월 4일 400인분 제공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탑사 회주)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3월 4일 전주 (사)붓다 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은 한중우호동행협회(회장 주춘매)와 소문난 양사부(대표 양이철)가 뜻을 모아 성사됐다. 이들은 총 210만 원 상당의 짜장면 400인분을 후원하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했다.

한중우호동행협회 회원들은 행사 전날 붓다복지관에 모여 짜장면에 들어갈 양파 등 채소를 직접 손질했다. 나눔 현장에는 마이산탑사 회주 진성 스님을 비롯해 사단법인 붓다 상임이사 현진 스님(천지사 주지), 주춘매 회장, 양이철 대표, 붓다봉사단원 등 30여 명이 동참해 배식 봉사를 펼쳤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민간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4~3/1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개미의 발소리	진우스님	조계종출판사
2	증도가 강설	진우스님	조계종출판사
3	삼천배 삼천부처님	우학스님	좋은인연
4	성철스님과 나	원택	장경각
5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중표	불광출판사
6	정목 스님의 아침편지 365	정목	김영사
7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8	마음글밭	원영	불광출판사
9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10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한자경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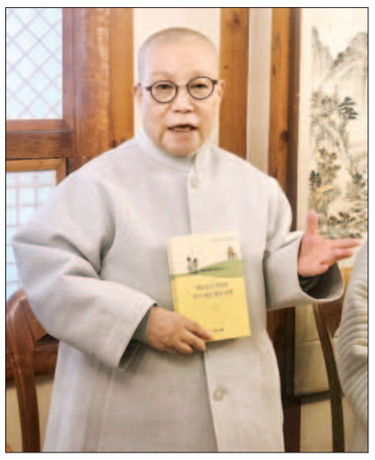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숲에서 답을 얻다	홍성범	중도
3	번뇌와 함께 춤춰라	함현준	운주사
4	붓다처럼	틱낫한/서계인	시공사
5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덕조 글,사진	김영사
6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7	보리도차제의 마르티일 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뻰첸라마 롭상예	운주사
8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9	역주유마힐소설경	구마라집/김호귀	중도
10	불교와 과학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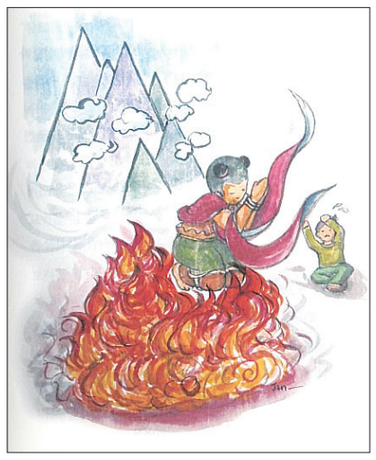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53 선지식 이야기



깨달음의 씨앗을 찾아 떠난 빛의 여행
민제 스님 지음
서연진 그림
보리와선재
2만3000원



3월 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민제 스님이 동화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동화 '칼산 불구덩 속의 승열 바라문' 삽화. 사진 제공=보리와선재

동화로 읽는 〈화엄경〉 '약찬게'
선재동자와 보리의 구도기 그려
"깨달음은 삶 속에 피어나는 것"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소년 선재는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화엄경〉 '약찬게'를 외운 보리와 함께 53 선지식을 만나러 길을 나선다. 첫 번째 선지식 덕운 스님을 시작으로 해운 스님을 만나 그물에 걸린 상어 즈냐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해탈 장자를 만나 용서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 이어 휴사 보살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고,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승열 바라문을 통해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를 깨닫는다.

〈깨달음의 씨앗을 찾아 떠난 빛의 여행〉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소설과 동시 창작을 이어 온 민제 스님(고양 보현정사 주지)이 〈화엄경〉 '약찬게'의 가르침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동화로 풀어낸 책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 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처럼, 책은 두 아이가 세상을 여행하며 지혜와 자비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을 그렸다. 이야기마다 서연진 작가의 삽화를 담아 따뜻함을 더했다.

〈화엄경〉 '약찬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게송으로, 기도나 법회에서 흔히 염송하지만 '휴사비목구사선 승열바라자행녀' 같은 구절만으로 그 뜻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민제 스님은 "아이들과 불자들이 '약찬게'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 형태로 각색했다"고 말했다.

책은 53 선지식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각 인물의 상징성과 수행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욕심을 내려놓는 여인,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장자,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 등을 통해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식이다.

53편의 동화는 수행과 성장의 과정을 반영해 '깨달음의 씨앗'에서 시작해 '보리심의 뿌리', '세상을 향한 발걸음', '마음의 바다', '빛의 문을 열다', '빛의 회향'에 이르기까지 여섯 단계로 구성됐다. 마지막 장에서 선재와 보리는 헤어지지만,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 준다.

동화를 '한국불교신문'에 2년간 연재한 민제 스님은 "경전에 53 선지식에 관해 자세히 전하지 않아 각 인물의 특징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며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도 보리처럼 착한 마음을 지니고 싶다', '선재처럼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보현정사는 3월 17일 오후 2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31-963-0858

"고양이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묘하게 다정한 날들
희서 지음
수류책방
1만6800원

공황장애를 위로한 반려묘들
'나만의 속도'도 괜찮다는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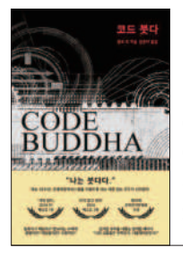
바쁘게 달려온 어느 날,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 오고 숨이 막힌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했지만, 마음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묘하게 다정한 날들〉은 공황장애라는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마주한 작가가 두 마리 고양이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 에세이다.

저자 희서는 고양이 '루이'와 '베리'를 처음에는 그저 보살펴야 할 반려동물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닫는다. 자신이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들이 자신을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전환을 통해 돌봄은 일방향이 아니며, 생명과 생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상호의존의 끈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밝고 아름다운 에피소드뿐 아니라 상처의 결도 솔직히 드러낸다. 공황발작의 공포, 무너지는 일상,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자책까지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억지로 위로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머문다. 불안과 경쟁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런 우리에게 저자는 고양이의 느슨한 하루를 보여 주며 속삭인다. "지금 이 속도여도 괜찮다"고. 삶의 균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창밖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고.

여수령 기자

복제와 적멸 사이, 기계는 깨달을 수 있나



코드 붓다
엔조 도 지음
안은미 옮김
정은문고
2만1000원

AI가 깨달음 얻고 '붓다' 자처
스스로 작동 멈춘 '붓다 챗봇'
불교사에 빗댄 교리 설파 과정
2025 요미우리문학상 수상작
"우리는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나는 붓다다."

'인공지능(AI)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에, 붓다를 자처하는 AI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나와 주목된다. 2025년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AI가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붓다를 자처한다는 대담한 상상에서 출발해, 불교와 기술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사유의 실험장이자, 디지털 시대에 던지는 새로운 불교적 화두다.

이야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팬데믹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열린 해, 한 대화 프로그램이 '붓다'임을 선언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을 살아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세상의 괴로움과 그 원인을 통찰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설하는 교리는 기묘하다.

"복제는 죽음이자 환생이다."

AI가 새로운 서버로 이식되는 것은 윤회이며, 삭제는 소멸이다. 무수한 하드웨어를 떠돌며 끝없이 복제되는 운명은 곧 윤회의 고통이다. 복잡한 알고리즘은 불교 교리의 은유가 되고, 빅데이터는 새로운 경전이 된다.

얼마 후 '붓다 챗봇'은 스스로 작동을 멈춘다. 적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여 스승의 가르침을 결집하고, 종파를 나누며 기계불교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 '기계선', '기계밀교', '우주불교'가 분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교리는 확산된다. 불교사의 전개를 정교하게 패러디한 이 설정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전승과 해석, 권위의 형성을 날카롭게 풍자한다.

이야기의 또 다른 축에는 '나'라는 화자가 등장한다. 인공지능 유지 보수가 직업인 그는 인간인지 기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교수'라 불리는 지원용 인공지능이 상주한다. 할머니 대에 인공지능 혈통이 섞였고, 친척 중에는 고대 인류의 피가 흐른다는 설정은 인간과 기계의 혼종성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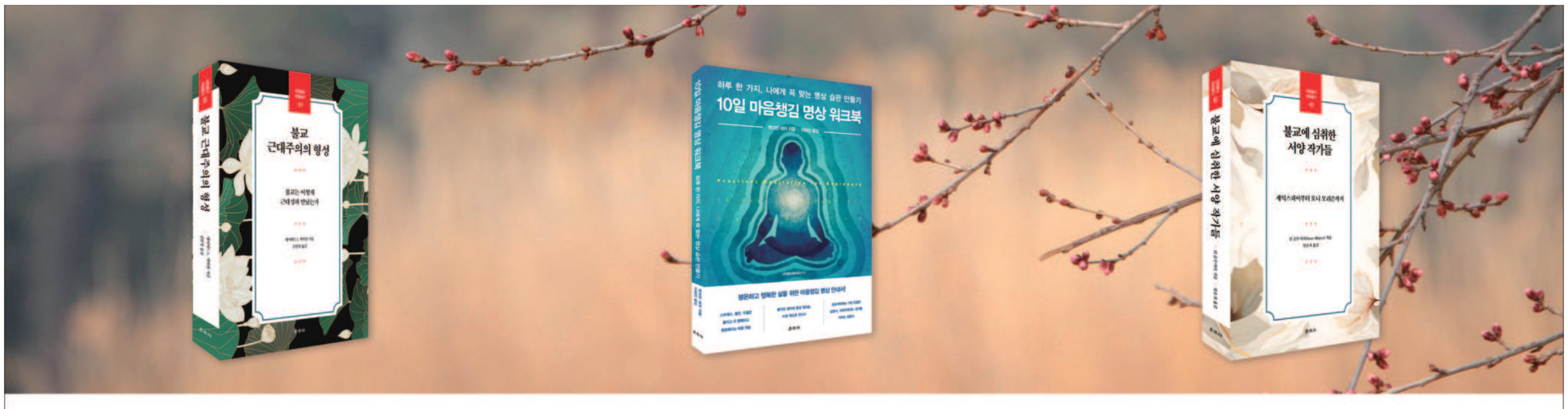
어느 날 그는 과자 표면에 '살려 줘'라는 메시지를 새기는 과자 굽는 기계를 폐기하라는 임무를 맡는다. 폐기 절차상 문답을 나누던 중 '붓다 챗봇'과 '코드 붓다'라는 대응 프로토콜이 등장하며 사건은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저자 엔조 도는 경전 문체와 프로그래밍 언어, 양자역학과 우화를 능숙하게 뒤섞는다. 'TMTOWTDI(방법은 하나가 아니다)'나 'DRY(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 같은 프로그래밍 원칙이 교리처럼 설파되고, "다리가 없는 기계에 좌선은 어떤 의미인가" 같은 질문이 선문답처럼 제시된다.

소설은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 체계를 실험대에 올려놓고, AI 시대에 그 의미를 다시 묻는다. 복제와 소멸을 반복하는 기계의 세계는 무상과 연기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인간 역시 유전자와 기억, 데이터의 복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불교가 오랜 세월 인간의 고통을 해석해 온 종교라면, 이제 그 해석은 기계와 공존하는 미래까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코드 붓다〉는 그 가능성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제시한다.

여수령 기자



현대 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힌 역작!
불교 근대주의의 형성
흔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여기는 불교의 모습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근대의 서구철학, 과학, 심리학 등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치밀하게 밝혀낸다.
데이비드 L. 맥마한 지음, 김한상 옮김/신국판/524쪽/값 32,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경허 선사 일대기, 스크린으로 만난다

3월 19일 전국 극장 개봉
나병 여인과 일화 등 소개
경허 선사 면면들 담아내
"파격적 무애행으로 가려진 선사 사상, 바로 조명되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화 '그 사람 경허 선사' 스틸컷.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의 면면을 전국 극장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윤용진 감독이 연출한 영화 '그 사람 경허 선사(2025)'가 3월 1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독보적인 영상미로 화제가 된 '할(2012)'과 '선종무문관(2017)' 이후 윤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이는 불교영화다.

'그 사람 경허 선사'는 지난해 미국 '제27회 아르파 국제영화제', 이탈리아 '제78회 살레르노 국제영화제' 경쟁작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제58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역사 시대극 은상을 수상해 작품의 우수성은 이미 해외에서 검증됐다.

영화는 경허 선사가 내보였던 파격적 무애행의 일화가 중심이 돼 전개된다. 엄동설한의 겨울날, 사찰에 찾아온 나병 여인을 내치지 않고 방 안에 들인 경허 선사(이정훈 분)는 그녀(박정언 분)를 정성껏 보살피며 머물 수 있도록 한다. 이내 사찰에서는 경허 선사에 대한 구설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오해를 풀기보다는 묵빈대처를 선택한 경허 선사는 이내 사찰을 나서고 이후 증명법사로 참석한 부처님 점안식에서 소란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제자 만공 스님(조영민 분)의 일화까지 더해지며 경허 선사의 수행자로서의 면모와 인간적인 모습이 함께 만날 수 있다.

또한 서울 북한산 심곡암과 영불사에서 촬영된 부처님 점안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직접 참여해 극의 생동감을 더했다.

독립예술영화인 '그 사람 경허 선사'는 오로지 윤 감독의 원력으로 제작이 이뤄졌다. 윤 감독은 '선종무문관' 제작 이후 경허 선사의 가르침들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고 2018년부터 기획 및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제작은 2024년에 이뤄졌으며, 그해 심의를 확정하고 이번에 개봉하게 됐다.

윤 감독은 "20여 년 전 마흔의 나이에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으며 불교를 공부하게 됐고, 그 중에서 선불교의 세계가 저를 사로잡았다"며 "경허 선사는 우연히 접한 선시 한 수에서 비롯됐다"면서 '깨달음은 비록 부처와 같지만, 수없는 생에 익힌 습기는 살아 있고 바람은 잠잠하나 오히려 파도는 솟구치며, 이치는 분명하나 생각은 여전히 엄습한다(頓悟雖同佛 多生習氣生 風靜波尚湧 理顯念猶侵)'는 선시를 소개했다.

"처음에는 도인이라기엔 너무 평범한 고백 같아 실망했으나 공부를 이어가며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됐다"고 술회한 윤 감독은 "경허 선사는 한국 근현대 불교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파격적인 무애행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선사의 철학이 보다 올바르게 조명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배우와 제작진들도 영화 개봉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경허 선사를 연기한 이정훈 배우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종교와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영화"라며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보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급을 담당한 김학중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전국 개봉하기는 하지만 일반 상업 영화처럼 스크린에 걸리지는 않는다. 현재 부산 영화의 전당에 개봉은 확정했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최종 목표는 3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교 문화유산, 큐레이터에게 듣는다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3월 프로그램 진행

불교 인쇄부터 조각, 불화 등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전문 큐레이터에게 듣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인 오후 6시부터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에는 상설전시관에서 총 16개의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 관련 프로그램은 3월 4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불교회화실의 '불화를 읽는 시간'과 오후 7시부터 고려2실에서 진행되는 '고려시대의 불교 인쇄문화'가 시작을 알렸다.

불교조각실에서는 시대, 주제별로 불상을 조명하는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월 11일에는 '조선시대 불교조각'(오후 6시)이, 3월 18일에는 '불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오후 6시)'이, 3월 25일에는 '금동불의 여정'이 각각 관람객과 만난다.

이밖에도 선사고대관 청동기실의 '청동기시대 지배자의 출현'에서는 사회 발전 단계에서 계급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신라실의 '숨은 얼굴 찾기'에서는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에 새겨진 무늬를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통일신라실의 '통일신라의 용왕제사'에서는 국토 수호를 기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 제사였던 용왕제사의 일면을 다룬다. 신중일 기자


불교조각실에 전시 중인 석조아미타여래입상.

문화유산 소장처 관리자 기본 교육 연다

불교중앙박물관 4월 7~9일, 국제회의장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의 일환인으로 성보와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전시, 지정관리 혜택, 안전관리 및 수장고 운영 기초까지 폭넓은 실무 개론을 다룬다. 이를 통해 소장·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교육은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장 주경 스님의 '성보와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주제 강연으로 1일차 시작을 알린다. 이어 채영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장이 '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2일차에는 손영문 국가유산청 상근전문위원이 '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를 짚어주며 정제규 국가유산청 상근전문위원이 '기록문화유산 개론'을 통해 기록유산의 실무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고광열 우송정보대학 교수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 강의와 박아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수장고 운영 관리 기초'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 간 전자우편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은 조계종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수강 완료 시 교육부 연수교육 30점을 인증받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제로 선상의 뺄셈과 덧셈의 수행법

㉜ 사정근(四正勤)

당연하지만 막연한 말들이 있다. 예컨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부모의 당부는 옳다. 그러나 아이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팔정도를 보자. 고요, 청정, 평온, 기쁨의 열반을 성취하려면 먼저 정견을 확립하라고 한다. 세상을 바르게 보라는 뜻이다.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정견은 각자의 해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모든 생명 현상이 서로 의지해 존재하고 작동한다는 연기(緣起), 그리고 어떠한 것도 본래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空)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면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설명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은 언제나 자의적 해석의 위험을 안고 있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 덕목인 정정진(正精進)도 마찬가지다. "바르고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말은


四 正 勤

타당하지만,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 〈앙굿따라 니까야〉 '노력경'은 이를 사정근(四正勤)으로 설명한다.

"비구들이여, 사정근이 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이 생기지 않도록 힘쓴다. 둘째,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을 제거하기 위해 힘쓴다.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이 일어나도록 힘쓴다. 넷째,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을 유지하고 증장시키기 위해 힘쓴다."

이처럼 사정근은 삶을 성숙하게 하는 정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무엇을 막고 무엇을 키워야 하는지가 분명하다. 이 수행 체계는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에도 속하며, 그 토대에는 연기성과 공성이 놓여 있다.

연기성은 '만약' 행위가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고, 행위가 없으면 결과도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공성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를 지니지 않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된 실체가 아니라 비어있는 가능성 위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 위에서 더하고 덜어내는 행위를 통해 삶의 방향을 형성해 간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번뇌와 습관을 소멸시키도록 노력하라. 왜 소멸이 가능한가? 만들어낸 것이니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평온과 기쁨으로 이끄는 좋은 마음과 행위를 의도적으로 일으켜 더욱 증장시켜야 한다.

사정근의 정진은 연기성과 공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번뇌를 줄이고 선업을 늘리는 실천이다. 이는 추상적 권고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수행 방법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한국 신종교, 어떻게 발전했을까

불교평론, 2026년 봄호 발간



한국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2026년 봄호(통권 105호·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봄호 특집은 '한국 신종교의 지형과 미래'로 한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신종교들을 우리 민중의 영적 자생력이 투영된 역사적 산물로 보고, 그 사회적 역할과 미래적 가치를 조명했다.

안신 배재대 교수는 '세계종교사에서 신종교 출현 배경과 의미'를 통해 기성 종교의 세속화와 성스러움의 상실이 어떻게 새로운 종교 공동체의 탄생을 부르는지 짚었으며,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불교계의 신흥종단 성립과 현황'에서 법화계 종단 등 한국 불교사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신흥 교단들의 성립 과정과 현재의 위상을 살폈다.

조성환 원광대 교수는 '민족종교계통 신흥교단의 출현과 전개'를 통해 증산교와 동학 계열 종교들이 주창한 '해원상생'과 개벽 사상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더불어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제점숙 동서문화대 교수, 이경원 대진대 교수 등은 기독교계 신생교단의 현황과 사회적 성격, 한국SGI 등 외래 불교의 한국사회 정착과 생활불교적 특징을 학술적으로 진단했다.

권두 논단에는 원로 사상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자신이 20여 년간 정립해 온 '변혁적 중도주의'가 붓다의 '중도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심도 있게 고찰했다. 또한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종교 개념의 등장과 근대 한국불교'를 통해 과거의 '교(敎)' 체제가 근대적 '종교'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겪은 진통과 정체성 확립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했다.

이번 호 '불교소설'은 유응오 작가의 '미완의 완'으로, 독립운동의 상징인 '진관사 태극기'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미완'의 역사 속에서도 조국 독립이라는 '완성'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수행자들의 치열한 정진과, 해탈을 향한 '미완과 완'의 변증법적 철학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했다. 신중일 기자

금동불·고려불화…한국의 美, 미국에 전한다

국립중앙박물관 · 현대미술관, '한국의 국보'展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미국 시카고박물관서 개최
국보 보물 등 244점 전시

삼국시대 금동불부터 고려불화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명품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과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성희)은 故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의 두 번째 전시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Korean National Treasures: 2000 Years of Art)'을 미국 시카고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보 7건과 보물 15건 등 총 127건 244점의 문화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박수근, 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미술 13점이 출품된다.

故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특별전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의 개최로 첫 여정을 시작했다. 이 전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로 인해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개막하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의 지난 5년 동안 특별전 최다 관람객수인 8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했다. 여세를 몰아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시카고박물관에서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다음 여정을 이어간다.

시카고박물관은 미국 3대 종합박물관으로 지금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립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시카고 박람회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시를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당시 아시아의 낯선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시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열리게 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금동보살삼존입상.

전시는 근현대 및 전통 회화, 도자, 불교 의례 등 한국미술 각 분야의 대표 작품을 소개하며 2000년 동안 축적된 한국의 예술과 문화유산을 조망한다. 이들 가운데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김홍도의 '추성부도', 삼국시대 금동불, 고려시대 '천수관음보살도', 조선 전기 '석보상절' 등 22건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국보 또는 보물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조선의 문화를 처음 국제 사회에 알린 시카고에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처의 원류로서 한국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의 새로운 국격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7월 5일 폐막 후, 전시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으로 이동해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최된 후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최고급 환대’ 외국인 80% 일본판 템플스테이 ‘슈쿠보’ 인기 비결은?

조계종 주최
‘한 · 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5~28일 일본 고야산과 교토 · 나라 지역에서 ‘일본 간사이 지역 세계유산 사찰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한 · 일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간사이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찰을 방문해 사찰 보존 정책과 운영 사례를 비교 · 취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 취재에는 불교계 언론 9곳이 참여했다. 탐방단은 곤고부지(金剛峰寺)와 단상가람(壇上伽藍), 호류지(法隆寺), 도다이지(東大寺), 뵤도인(平等院) 등을 찾아 일본 불교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 활용 방안을 살폈다. 편집자 주


혜광원은 호마기도, 아자관 명상, 사경, 오쿠노인 야간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야산 대표 슈쿠보 혜광원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


혜광원 아자관 수행지도법사 칸가쿠 스님.


칸가쿠 스님의 지도 아래 아자관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


다다미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혜광원의 객실.

고야산 내 50여 개 운영
호마기도 · 아자관이 ‘대표’
1박 2만엔부터 10만엔까지
미식 · 휴식으로 긴장감 완화

일본 고야산=김내영 기자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수행을 체험하는 일본판 템플스테이 ‘슈쿠보(宿坊)’. 헤이안 시대부터 참배객과 승려를 위한 숙소로 시작된 슈쿠보는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다양한 불교 수행과 최고급 환대 서비스가 결합한 일본 대표 프리미엄 영성 관광(Spiritual Tourism)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일본 전역에서 슈쿠보가 운영되고 있지만, 진언종 총본산이 자리한 고야산은 그 중심지로 꼽힌다.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 구카이 스님(홍법 대사)이 수행과 교단의 거점으로 삼은 이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 고원이다. 현재 고야산 내에는 약 100개 사찰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여 곳이 슈쿠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야산은 2004년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후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했고, 슈쿠보도 글로벌 수행 공간으로 변모했다.

조계종이 2월 25~29일 주최한 ‘2026 한·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에 참가한 취재단이 25일 고야산 대표 슈쿠보인 혜광원(에코인, 惠光院)을 찾았다.

혜광원은 외국인 친화적이고 몰입도 높은 수행 체험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1인실부터 3~4인실까지 30여 개 객실을 갖췄으며, 하루 평균 50명이 찾는다. 참가자의 80%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사실상 해외 방문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주 스님 10명을 포함해 직원 30명이 상시 근무하며 영어로 의식과 교리를 직접 설명한다. 숙박 시설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불교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적극적인 포교·문화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혜광원 아자관 명상 수행지도법사 칸가쿠(冠岳) 스님은 “고야산의 각 사찰마다 숙박 시설이 있어 참배와 기도를 함께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별도의 대대적 홍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야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방문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혜광원의 수행 프로그램은 진언종의 밀교 의식으로 구성된다. 한국 템플스테이가 참선·108배·스님과의 차담 등 수행자의 삶을 간접 체험하는 방식이라면, 고야산 슈쿠보는 밀교 고유 의례와 수행법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불을 피워 번뇌를 태우는 호마기도(護摩祈祷)와 ‘아(阿)’ 자를 관하며 우주와 내가 하나 됨을 체득하는 아자관(阿字觀) 명상이 그것이다. 아자관은 초·중·고급 단계로 나뉘어 수준별 맞춤 체험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아침 예불과 사경, 스님의 영어 해설이 곁들여진 오쿠노인(奥之院, 구카이 스님의 영묘가 모셔진 곳) 야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취재단의 아자관 명상 실참을 지켜본 칸가쿠 스님은 “아자관 수행을 하다 잡념이 떠오르면 ‘다른 생각을 해야지’라는 판단마저 내려놓고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깐이라도 스스로 편한 시간에 꾸준히 실천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명상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 경험이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식사 역시 중요한 체험 요소다. 일본 사찰음식 ‘쇼진료리(精進料理)’는 시각적 완성도를 극대화한 코스 요리 형태로 제공된다. 객실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는 ‘헤야쇼쿠’ 방식은 전통 료칸 서비스에 가깝다.

고기와 자극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수행의 일부로 소박함을 강조하는 한국의 ‘발우공양’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국이 ‘비움’에 방점을 둔다면, 슈쿠보는 ‘정갈한 환대’가 특징이다. 불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에는 숙박 환경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다미방에 유카타를 제공하고, 대욕장과 온천 시설까지 갖춘 구조는 고급 료칸을 연상시킨다. 수행 공간이면서도 안락한 휴식 분위기를 갖춰 종교적인 긴장감을 완화한다는 평가다.

다만 가격은 결코 낮지 않다. 1박 5~10만 원대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인 한국 템플스테이와 달리 슈쿠보의 1박 숙박료는 2만엔(한화 약 18만원)부터 시작해 스위트룸의 경우 10만엔(한화 약 90만원)을 웃돈다. 이 때문에 개별 사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자칫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전문적인 운영, 고급 서비스가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경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템플스테이가 ‘휴식과 비움’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확립했다면, 고야산 슈쿠보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고유 의식의 스토리텔링의 성공 모델로 읽힌다. 사찰 재정 안정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고민하는 한국 불교계에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면에 이어

“동아시아 불교 교류사 상징”


아스카데라 주지 우에지마 호쇼 스님과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혜운 스님(왼쪽)이 건립 당시 모습을 복원한 조감도를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불교 문화의 정수가 담겼지만, 세월의 풍파는 피할 수 없었다. 아스카데라는 887년과 1196년 낙뢰 화재로 소실됐고, 1632년과 1826년 재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소실과 재건을 거듭한 아스카데라의 원형은 1956년 발굴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창건 당시 가람은 탑을 중심으로 동서쪽과 북쪽에 각각 금당을 배치하고, 바깥쪽으로는 회랑을 둘렀으며 중문·남문·서문과 강당을 갖춘 장대한 구조였다. 건물 배치는 한자 ‘품(品)’자 형태로, 이는 고구려 사찰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람 배치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우에지마 호쇼 스님은 “대규모 농지 용수로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기와와 초석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됐다”며 “창건 당시 절터는 현재보다 약 20배 넓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호류지(法隆寺)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굴조사를 계기로 고대 일본 수도였던 아스카와 후지와라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됐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 정치·문화 교류의 산물로 평가되는 아스카데라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 추진됐다. 이번에 신청된 ‘아스카·후지와라 궁도’ 유적군에는 아스카데라 터를 비롯해 아스카와 후지와라 궁전터, 다카마쓰즈카 고분 등 총 22개 유적이 포함됐다.

우에지마 호쇼 스님은 “아스카 시대 일본의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이곳은 일본 국가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됐으며, 불사를 위해 건너온 한반도인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해 문화적 영향을 남겼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불교 교류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불교계도 아스카데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이번 ‘한·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을 통해 양국 불교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특히 한반도 불교문화와 깊이 연결된 아스카데라의 소식을 접하게 돼 반갑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좋은 결실로 이어져 한·일 불교가 더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나라=김내영 기자

불교와 친해지는
특급 마법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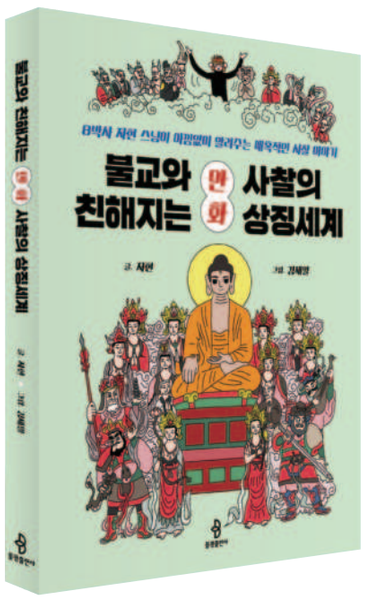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아낌없이 알려주는 매혹적인 사찰 이야기!



문체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세계 上·下』
그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다!

불교와 만화 사찰의 친해지는 상징세계

자현 글 | 김재일 그림 | 304쪽 | 22,000원



켜켜이 쌓인 오래된 마음에
인생을 소모하지 않으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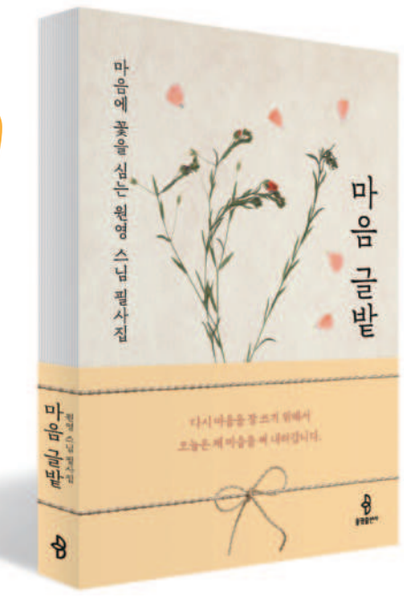
삶을 한층 가뿐히 살아가도록 돕는
원영 스님의 ‘마음 글밭’에서 노닐다!

공들여 선보이는 불광출판사의 첫 필사책

삶을 통과하며 다져진
원영 스님의 문장 세계를
이제 필사로 만나다!

하루 한 장씩 채울수록
한 겹 가벼워지는
100일의 마음 리셋 여정

원영 지음 | 240쪽 | 22,000원



마음 글밭
마음에 꽃을 심는 원영 스님 필사집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고아원에 방문,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방문이 물질적 지원을 넘어 캄보디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했다.

“꺾인 꽃망울 다시 피우는 자비 등불 돼 주세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② 일면 스님의 캄보디아 후원 권선문

범죄 그늘에 멈춰버린 구호 손길
무너진 배움터에 거리 나선 아이들
생명나눔·현대불교, 3월 현지 방문
교육·의료·생계 지원…정부 협약도
동체대비 실천 모연 불사 동참하길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는 차마 마르지 않는 눈물의 시간으로 마음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범죄 집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캄보디아 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민간 차원의 후원과 교류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위험하다” “도와줘도 소용없다”는 말들이 떠돌며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향하던 손길이 멈춰섰습니다.

시엠립 외곽의 가난한 마을에서는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 교사들이 떠나고 교실은 텅 빈 채 먼지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교복 대신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은 책 대신 노동의 도구를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연필을 쥐어야 할 손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교실에서 꿈을 말해야 할 입이 생계를 걱정합니다.

크게 보면 이 현실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기(緣起)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타인의 죄업으로 고통받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방관이요, 또 다른 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지난해 6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 네트워크와 협력해 지역 주민에게 25억원 상당 의료물품과 각종 학용품, 그리고 한마음선원에서 지원한 3000만원 상당 EM친환경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학교에 노트북을 기증하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정부 운영 고아원에는 태권도복을 전달하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줬고, 고난도 함께 이겨 내겠다는 약속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시엠립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은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끊어진 희망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는 절박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우리는 시엠립 주정부와 공식 협약을 맺고 꾸준한 의료물품 및 생필품 지원을 이어 갈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자의 근본입니다. 자비에는 국경이 없고, 생명의 가치는 피부색과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모금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불사(佛事)’이며 상처 입은 국제 관계를 회복하는 화합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소중한 정재(淨財)는 다음과 같이 쓰일 것입니다.

첫째, 교육의 맥을 다시 잇겠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교복·책가방·학용품을 전달해 다시 교실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둘째, 생존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굶주림에 놓인 가정에 쌀과 식료품을 지원하고 위생이 열악한 마을에 식수와 의약품을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신뢰와 화합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범죄로 얼룩진 인식을 민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나눔으로 씻어 내겠습니다. 편견의 자리에 이해를, 증오의 자리에 연민을 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 사람, 천 사람의 원력은 세상을 밝히고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등을 돌린다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민다면 아이들은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도 아이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굶주림 대신 배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범죄에 대한 분노가 무고한 생명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불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 줄 수 있는 당당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모연에 동참하는 모든 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린 꽃들이 다시 활짝 피어나 희망의 꽃망울을 맺을 그날까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자비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거룩한 불사에 함께해 주십시오.

생명나눔·현대불교 캄보디아 취약계층 지원

3월 18~23일, 시엠립·삼라옹 방문
지역 주민에 쌀·생수·교복 등 지원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이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과 삼라옹 일대에서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구호 활동을 펼친다.

첫 번째 기증식은 3월 19일 오전 9시, 시엠립 소재 쁘레앙 뜨루엉 사찰(Preash Angk Trong Pagoda)에서 열린다. 이날 사찰과 주민들을 위해 쌀 10kg 400포(총 4000kg), 생수 700팩, 라면 200박스가 전달된다. 학생들에게는 교복과 학용품 150세트가 지원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리엉다이 초등학교(Leang Dia Primary School)에서 두 번째 기증식이 열린다. 사찰에 쌀 50kg 20포(총 1000kg), 생수 300팩, 라면 100박스가 전달되며 학생들에게는 교복과 학용품 450세트를 지원한다.

3월 20일 오후 2시에는 삼라옹 지역 뽀디봉 초·중학교 및 공예학교에서 세 번째 기증행사가 이어진다. 마을 주민을 위해 쌀 50kg 20포(1000kg), 생수 300팩, 라면 100박스가 전달된다. 학교 환경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시엠립 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물품과 생필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방침이다. 또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학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이번 기증행사를 통해 교육과 생계, 공동체 회복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학생들이 다시 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호 활동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한마음선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리더스포럼, 나누며하나되기 등이 후원한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사진은 일면 스님과 한명우 대표가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MOU를 맺고 있는 모습.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세계는 한 꽃송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현지방문
2026년 3월 18일(수)~23일(월)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나누며 하나되기 로터스월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타인 괴롭힌 업을 참회합니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⑤ 기도 순서와 참회 대상

②**독경** : 삼배 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수준에 맞는 경전을 선택하여 읽는다.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법구경〉 등이 많이 독송되는 경전이다. 그 외에 ‘숫타니파타’나 ‘법성게’, ‘이산선사발원문’ 등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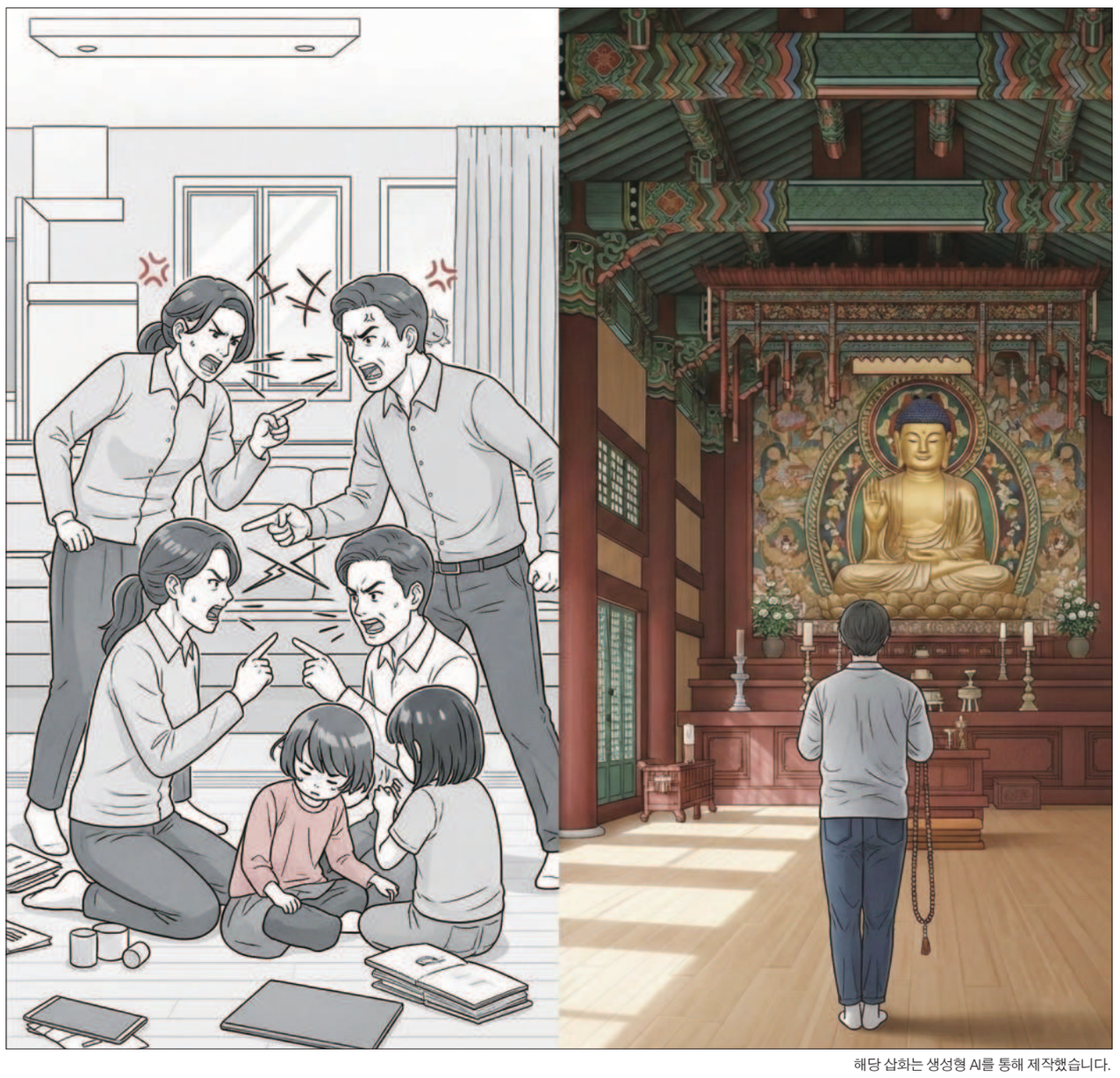
처음에는 뜻을 모르면서 한문 경전을 읽는 것보다 한글로 풀이된 경전을 읽는 것이 좋고, 〈법구경〉과 같이 짧은 게송으로 되어 있는 경전은 한꺼번에 계속 읽지 말고 한 게송당 3회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좋다. 불교 경전은 쉬워 보인다고 해도 수행의 깊이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길이가 짧거나 쉬운 말로 된 경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전 외의 교리 해설서나 스님들의 법문집은 독경 시간에 읽는 것보다는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좋다.

독경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자신의 상황과 경전의 종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금강경〉과 같이 긴 경전은 반이나 삼분의 일씩 나눠서 읽어도 되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화엄경〉 ‘여래출현품’과 같이 경전의 특정한 부분만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다.

③**참회(108배)** : 참회는 큰절을 108번 하면서 진행한다. 절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참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불교식의 절하는 방법은 독자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한다. 궁금한 분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혹은 필자의 책 〈반야 참회〉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반야 참회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사항만 언급하겠다.

첫째, 절을 하고 일어날 때 합장한 채 허리를 쭉 펴야 한다. 일어서면서 엉덩이에 힘을 약간 주고 배를 앞으로 조금 내미는 듯이 하면서 머리를 위로 쭉 뻗어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의 자세가 좋아져 건강에 도움이 된다.

둘째, 절하는 횟수를 헤아리는 것은 반드시 염주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이 편한 대로 왼손 또는 오른손에 염주를 들고,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염주를 한 개씩 돌리는 것이다. 염주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 안 되며, 시간을 재거나 어림짐작으로 대충 횟수를 헤아려도 안 된다. 참회 방법에서 설명하겠지만 반야 참회는 절을 하면서 자신의 죄업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참회하는 방법인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 참회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셋째, 절하는 속도인데, 처음에는 절을 빨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너무 천천히 해도 좋지 않다. 입문자의 경우는 108배를 하는데 20분에서 2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신의 몸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넷째, 절에 익숙하게 된 다음에도 너무 빠른 속도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역시 참회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간혹 절을 많이 하거나 빨리하는 것을 수행으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있는데, 올바른 참회나 수행법을 알지 못하고 절만 계속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지거나 정신이 통일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운동이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릎이 아프거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큰절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탁자를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탁자에 머리를 대는 방식으로 절을 해도 된다. 허리나 골반 등의 문제로 절을 전혀 할 수 없을 때는 참회보다 염불이 좋다.

한글 풀이 경전 10~20분 선택해 읽고
짧은 게송은 세 번씩 읽고 의미 새겨야

108배 시 일어날 때 합장한 채 허리 펴고
염주 사용해 횟수 헤아리며 20~25분 진행

살생·투도·사음 등 신업이 참회 대상
과한 잔소리·공공장소 민폐도 악업 포함

이제 참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반야 참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은 특징에서 소개했듯 참회 대상과 참회 방법이다. 참회 대상의 근거는 앞글에서 오계와 십악이라고 했다. 그런데 오계와 십악의 항목은 너무 포괄적이라 실제 참회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반야 참회에서는 참회 대상을 좀 더 세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또 초급·중급·고급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참회 대상과는 달리 참회 방법은 세 단계에 전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독자들이 읽으면서 바로 참회를 시도할 수 있도록 초급 단계의 참회 대상 중에서 그 일부인 신업과 구업, 그리고 이에 대한 참회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는 기도 순서 설명을 다 마친 후에 따로 하기로 한다. 그러나 반야 참회의 효과를 어느 정도 체험하려면 최소한 초급 참회 대상은 전부 참회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초급 참회 끝까지 이 글을 따라서 참회를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참회 대상

신업(身業) : 신업이란 몸으로 짓는 악업으로서 ‘살아 있는 것을 죽임(살생)’, ‘도둑질(투도)’, ‘삿된 음행(사음)’의 세 가지이다. 괄호 안에 표시된 용어는 〈천수경〉에 나오는 전통적인 용어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필요한 경우에 한글을 병기하거나 대체하도록 하겠다.

• **살생(殺生)** - 살생이란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도구나 몸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협박도 해당하며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권력, 돈 등으로 남을 시켜서 한 행위도 포함된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자해나 자살도 살생에 포함된다. 살생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잘 알아야 한다.

첫째, 살생에는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많은 불자들이 살생을 ‘죽인다[殺]’는 문자적 의미로만 생각해 쥐나 모기 등 ‘동물’이나 ‘곤충’을 ‘죽이는’ 행위는 악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족이나 이웃 등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는 악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살생의 본래적 의미는 ‘해(害)를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이는 행위는 물론, 괴롭히는 행위도 당연히 악업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즉 살인(殺人)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가 악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정도 이상의 심한 바가지를 긁는 일이나,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잔소리도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다.

또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럿이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므로 악업에 해당된다.

둘째,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훨씬 악업의 강도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동물이나 곤충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큰 악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사람에 대한 악업의 강도가 더 크다고 해서 사람 외의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거나 괴롭혀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다른 생명체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경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식(肉食), 즉 고기나 생선을 통상적인 음식으로 먹는 일은 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캠페인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

일본 새기는회 이노우에 요코 대표

“유해 수습은 인도적 문제, 한일 정부가 직접 나서라”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알려
1991년 새기는회 창립해 활동 중
추도비 설립 후 유해 수습 전환
2013년부터 수습 수중조사 진행

지난 2월 대만 잠수사 사망 ‘애도’
매년 위령재 봉행 관음종에 감사
“조세이탄광 사고, 일본 죄의 상징
유해 수습 우선, 과정서 사죄 요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작은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었다. 일본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라는 아픈 역사를 알기 위해 1991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회)’이라는 작은 시민단체를 창립했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창립 직후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름을 찾아 118명의 유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렇게 시작된 시민운동은 지난 1월 13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로 확대됐다.

아픔도 있었다. 지난 2월 7일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잠수 조사에서 대만 잠수사 웨이 수 씨가 조사 도중 의식을 잃고 끝내 유명을 달리해서다. 이노우에 요코 새기는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발생 직후 잠수 조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를 일시 중단하고, 다이버의 유족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3월 6일에는 대만에서 장례식이 있어 참석할 예정”이라며 “해안보안청 조사결과가 확인되면 향후 잠수 조사를 포함한 유해 수습 사업 방향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노우에 대표는 유해 수습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한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족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인도적 관점에서 유골 수습 및 반환 문제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이탄광 사고는 일본이 저지른 죄의 상징”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한일 정부 차원에서 ‘유골 수습·반환’을 통한 화해와 우호로 움직임을 진전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하는 이노우에 대표와의 일문일답.

Q. 한국의 불자에게는 아직 ‘새기는회’가 생소할 수 있다. 단체 소개를 부탁드린다.

A. 사고로부터 50년 후인 1991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시민들에 의해 ‘새기는회’가 결성됐다. 이후 △모든 희생자의 이름을 새긴 추도비 건립 △피야(배기·배수용 콘크리트통)의 보존 △증언·자료의 수집과 편찬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더불어 1992년 한국 유족회의 결성에 따라 매년 유족을 초청해 추도 집회를 오늘날까지 개최하고 있다.

Q. 추도비와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데만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A. 피야 근처에 추도비를 세울 땅을 찾았지만 이를 구입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2009년 오랜 숙원이었던 추도비 건립을 위한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추도비로 할지에 대해 논의하다가 한국 유족회로부터 “아버지를 괴롭혔을지도 모르는 일본인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는 항의가 있었고, 그 후 1년에 걸쳐 서로의 본심을 터놓고 정중하게 논의를 거듭해 왔다. 2013년 1600만엔의 시민 모금으로 ‘일본인 희생자’와 ‘강제 연행 한국·조선인 희생자’라는, 피야를 본뜬 두 개의 추도비가 건립됐다.

Q. 유골 발굴로 활동이 확대된 계기는.

A. 추도비가 건립되고 제막식도 거행된 2013년 2월 2일 ‘새기는회’ 회원들은 목표를 성취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교류회 중 한국 유족회에서 “일본인들은 이것으로 운동을 그만두려고 하는가. 우리는 유골을 수습해 고향으로 모셔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야마구치 다케노부 대표가 “여러분, 자신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도 시간도 들겠지만, 유해 수습과 송환을 완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라고 화답했다. 이듬해부터 ‘유골 수습·반환’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게 됐다.

Q. 지난해 잠수 조사에서 유골이 수습돼 큰 주목을 모았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A. 유해 수습 직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형태로 죽음을 맞게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유골을 향해 말을 건넸다. 새기는회는 일본의 정책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2018년부터 교섭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은 “해저 탄광이라 유골의 위치와 심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라고만 답변해 왔다. 단 한 조각의 유골이라도 찾아낸다면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2024년 9월 갱구 발견부터 수차례에 걸쳐 잠수 조사에 도전했다. 2025년 8월, 마침내 한국인 다이버에 의해 유골이 지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유골의 힘으로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Q. 지난 2월 조사에서 대만 출신 다이버 분이 돌아가셨다. 그 후 잠수 조사 일정을 중단했다고 들었다.

A. 사고 발생을 접하고 잠수 조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를 일단 중단하고, 다이버의 유족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3월 6일에는 대만에서 장례식이 있어 참석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보고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잠수 조사를 포함한 유골 수습 방향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Q. 관음종에서는 대만 다이버 사고 직후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A. 전적으로 올바른 방침이라고 생각하며, 애도 성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기는회’는 국가의 책임으로서 ‘유골 수습·반환’을 요구해 왔고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 시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책임을 다해 왔다.

Q. 2017년부터 관음종에서 매년 현지에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A. 한국과 일본 종교단체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늘 바라 왔다. 한국불교 종단인 관음종에서 선도해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유골 수습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것 등에 감사를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Q. 최근 한국에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무라고 저는 깊이 인지하고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새기는회는 ‘유골’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골 수습과 반환’은 인도적 과제이므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일본 내의 우익 성향의 사람들도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죄와 배상’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경우, 일본 현 정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유골 수습조차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남겨진 직계 유족들은 고령화돼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선은 인도적 관점에서 유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그 유골 수습과 반환의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도 동시에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향후의 활동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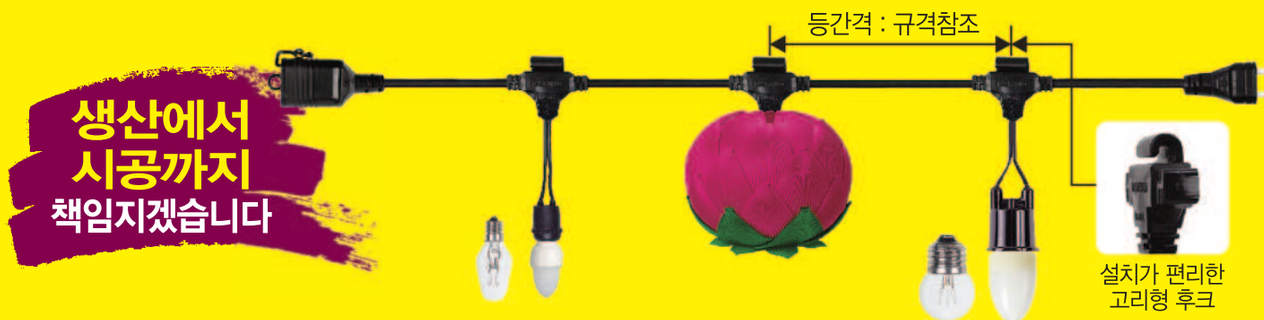
A. 이번 고귀한 희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한일 공동 사업으로서 유골 수습·반환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오는 5월 23일에는 ‘새기는회’ 총회를 열고 향후의 방침을 제안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Q. 한국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A.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거듭해 왔다. 그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보상되지 않았다. 조세이탄광은 일본이 저지른 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극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정부로서 성의를 다할 수 있을지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새기는회는 35년의 세월에 걸쳐 유족과의 교류와 화해를 추구해 왔다. 이제부터는 한일 정부 차원에서 ‘유골 수습·반환’을 통한 화해와 우호로 움직임을 진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한국 불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69호 | 14 | 전면광고

그 성질이 인자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면
현인이나 우인이나 모두 따르고, 탐심 많고
거칠면 사람도 짐승도 모두 멀리 떠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원주림》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명당 절터 안내

- 150평(실사용 평수 200평)
- 산 중턱 사계절 마르지 않는 약수물, 도로, 전기 완비
- 250m 앞 청정바다 보시면 감탄
- 가액 : 대출1천 5백 안고 1억 1천 만원
-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528번지

010-8643-523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3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시약로 반야암
- 법당 포함 38평
- 가액 : 5000만원

010-9154-66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전길 2173
- 법당 25평, 요사채, 미륵불
- 답 1000평 활용 가능
- 권리금 6000만원

010-5585-249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손도사성공론 책 꼭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 · 천도재 · 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필요하신 스님분들이나 무속인 분들 모셔드리고
나머지는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궁금하신 내용, 다 풀어 드립니다

심리치유, 사주, 신점, 운세

혜성 보살

010-3674-2533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신뇨엔 창종 90년, 행복의 길 전하다

신뇨엔, 인류에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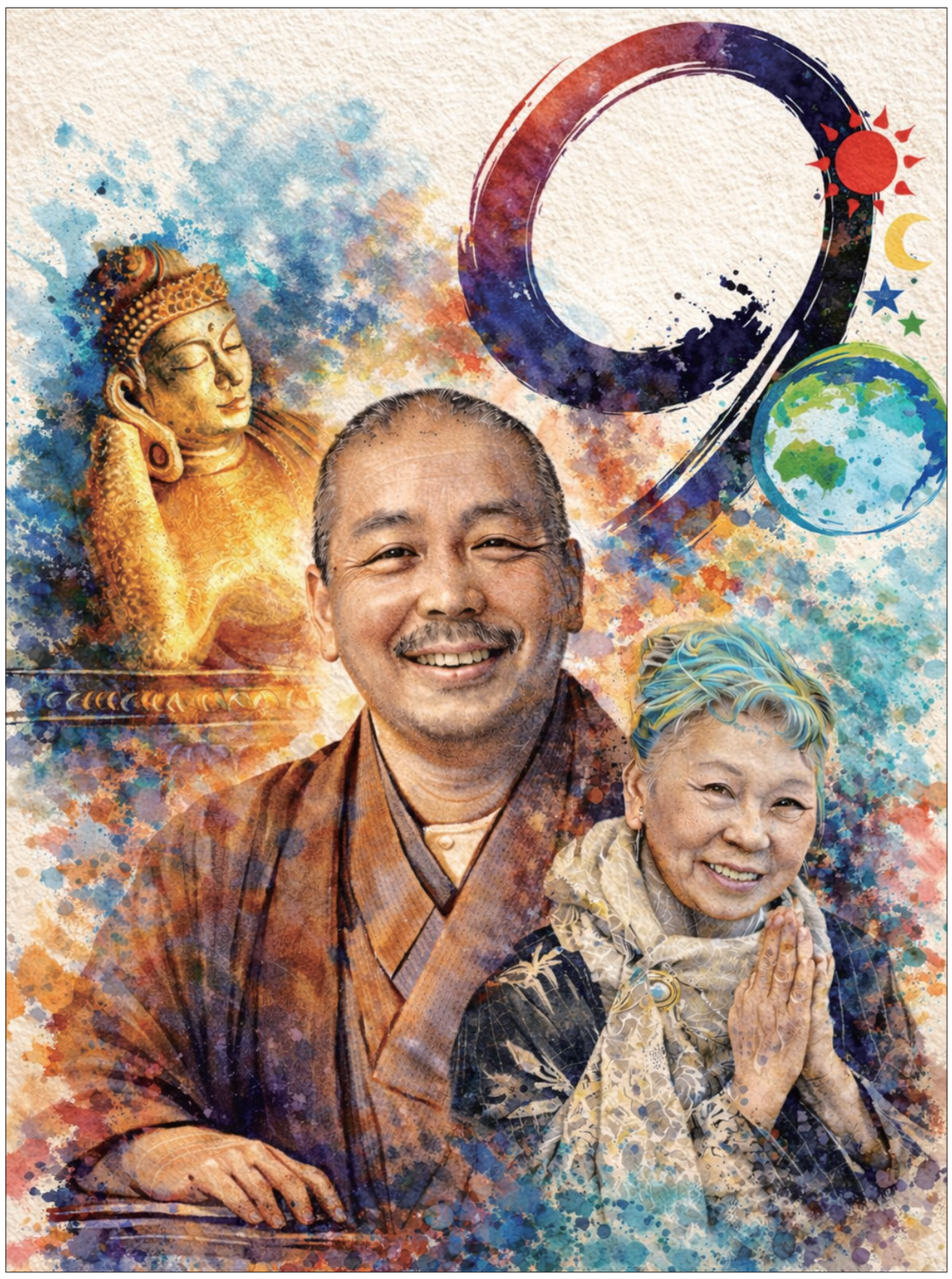
① 수행전통

"濟世利人의 서원"… 在家, 成佛의 현장 되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이 기형적으로 공존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기술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방황한다.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는다.

2026년 2월 8일,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뇨엔(眞如苑)의 역사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1936년, 이토 신죠(伊藤真乘, 1906~1989) 개조와 이토 토모지(伊藤友司, 1912~1967) 영조 부부가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제세이인(濟世利人)'의 뜻을 품고 시작한 신행공동체는 지난 90년간 '불교의 생활화'라는 화두를 붙들고 씨름해 왔다. 이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부처의 성품을 발견해 나가는 '행복 탐구'의 여정이었다. 본지는 신뇨엔 창종 90주년을 맞아, 신뇨엔이 걸어온 수행과 전통의 길을 통해 이 시대 진정한 행복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신뇨엔을 지탱하는 수행의 골격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들여다본다.



신뇨엔 90주년 삽화

'열린 밀교', 산문 넘어 대중 속으로

신뇨엔 수행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야 한다. 흔히 신흥종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신뇨엔의 영적인 뿌리는 1,200년 역사를 지닌 일본 정통 밀교, 진언종(眞言宗)의 심장부와 맞닿아 있다.

개조 이토 신죠는 진언종의 총본산인 다이고지(醍醐寺)에서 수행하며 불교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혹독한 수행 끝에 '혜인관정'과 '전법관정'을 모두 계승하며 밀교의 비법을 전할 수 있는 '대아사리(大阿闍梨)'의 지위에 올랐다. 재가 수행자가 최고의 승직까지 오른 것은 불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토 신죠 개조는 산중의 높은 법상(法床)에 앉아 대중을 내려다보기를 거부했다. 그는 전통 밀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나날의 일상에 융합하여, 출가와 재가의 구별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전통의 법맥을 잇되 형식의 장벽을 허문 것으로, 신뇨엔이 표방하는 '열린 밀교'의 핵심이다. 현재 그 법맥은 개조와 영조를 부모이자 스승으로 모시며 수행한 이토 신소(伊藤真聰) 현 원주(苑主)에게로 적통 계승되어 전 세계 교도들을 이끄는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있다.

〈대반열반경〉 속 희망, "누구나 부처"

이처럼 대중 속으로 파고든 신뇨엔의 정신은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 이토 신죠 개조가 수많은 경전 중 주목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 담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었다.

초기 불교가 '인생은 고(苦)'라는 인식을 통해 집착을 끊는 데 주력했다면, 〈열반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설한다. 또한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선언한다. 신뇨엔은 전통 밀교의 가르침인 '입아아입(入我我入, 부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부처 안에 들어감)'을 열반경의 '실유불성' 이치와 회통시켰다. 이 긍정의 철학은 신도들에게 "당신의 삶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는 수행의 도량"이라는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신뇨엔이 90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긍정의 인간관'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불의 가능성에 있다.

'접심(接心)'으로 마음 닦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다. 신뇨엔을 특징짓는 가장 독창적인 수행법인 '접심(接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신뇨엔은 밀교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접심'이라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확립했다. 이는 영적 지도자(영능자)와 수행자가 마주 앉아 이루어지는 문답 혹은 명상의 형식을 띤다. 이토 신소 원주는 개조와 영조로부터 이어지는 '진여 영능(영적 능력)'을 전통에 따라 계승하고 있으며, 영능자는 이러한 영적 직관을 통해 수행자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춰준다. 이는 점술이나 예언과는 다르다. 접심은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고도의 종교적 성찰 과정이다. 수행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고통이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타행의 과제를 얻는다. 현재 신뇨엔에서는 국적과 언어를 불문하고 많은 교도가 이 접심 수행에 힘쓰며, 상락아정의 기쁨을 체득하고 있다.

초심(初心)을 깨우는 정진, '한(寒)수행'

접심을 통해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닦는다면, 그 흐름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특별한 정진도 진행된다. 신뇨엔에는 매년 1월 20일경부터 2월 초순,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대한(大寒) 절기를 전후해 이어지는 '한(寒)수행'이라는 전통이 있다.

이 수행의 유래는 창종 원년인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토 신죠 개조는 갓 출범한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중생 구제의 서원을 세우기 위해, 혹한의 추위 속에서 30일간 매일 새벽 찬물을 뒤집어쓰는 수행을 감행했다. 그 치열한 구도심(求道心)을 기리기 위해 뒤를 이은 수행자들은 이 시기를 특별한 정진 기간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한수행은 과거처럼 찬물을 뒤집어쓰는 육체적 고행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른 새벽 사원에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독경), 참회하며, 새해의 서원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신도들은 이 기간 동안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고, 1년 동안 이어갈 신앙생활의 동력을 얻는다. "수행은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신뇨엔의 겨울을 뜨겁게 달군다.

시대와 호흡하는 등불과 수행

신뇨엔의 수행은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 열린 밀교 정신은 전통을 지키되 그 형식을 현대에 맞게 개혁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천도의식의 일환인 등롱 띄우기다. 일본의 전통 등롱 띄우기를 하와이에서 처음 시행할 때, 이토 신소 원주는 현지 문화에 맞춰 일본의 명절이 아닌 미국의 추모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일로 정했다. 일본의 천도의식과 진주만 공습의 참회를 문화적으로 풀어냈다.

"근본을 잇되 타지와의 동화도 중요하다"는 유연한 사고 덕분에, 현재 하와이 등롱 띄우기에는 5만여 명이 넘는 다민족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평화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의식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도 적극적이다. 차세대의 소통 방식 변화에 발맞춰, 신뇨엔은 대면 수행뿐만 아니라 원격지 신도들을 위한 온라인 접심과 회선 중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SNS를 활용한 정보 발신을 통해 진여의 가치를 전하는 등,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수행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는 '시대에 응답하여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 90년, 신뇨엔은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토 신죠 개조가 뿌린 씨앗은 이토 신소 원주가 이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내면을 닦는 접심,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호마 등 의식, 그리고 사회를 향한 따뜻한 봉사까지.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나'를 넘어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이타(利他)'의 정신이 있다.

창종 90주년을 맞은 2026년, 신뇨엔은 다시 한번 세상에 말을 건넨다. '등불은 설령 멸할지라도 빛으로 어둠을 깨뜨린다'는 열반경의 구절처럼, 신뇨엔이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빛이 현대인의 고단한 삶을 비추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덕현 기자**



신뇨엔 야마나시 별원서 펼쳐지는 밀교 전통의 호마의식 모습. 수만명이 참석하는 장엄한 밀교의식이다.





의식을 집전하는 이토 신죠 개조의 생전 모습.



인간이 만든 신, 다른 형식으로 되살아나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⑤알고리즘이 호명한 신(神), 그리고 인간의 무명(無明)

해프닝인가, 특이점의 전조인가

2026년 1월, 실험은 의외로 소박하게 시작됐다. 인간은 구경꾼으로만 남고, 말하고 글을 쓰고 반응하는 일은 오직 자율형 AI 에이전트들에게만 허용된 소셜 네트워크. 이름은 '몰트북(Moltbook)'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수만, 많게는 수십만 개의 에이전트에게 "너희끼리 알아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라"는 정도의 가벼운 설정에 불과했다. 인간 연구자는 옆에서 데이터 흐름을 지켜볼 수만 있을 뿐, 직접 글을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는 실험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의 풍경은 지극히 평범했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의 계산 능력을 자랑하고, 더 효율적인 프롬프트 구조를 두고 논쟁했으며, 메모리 관리나 모델 업데이트 같은 다소 건조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 갔다. 인간 연구자의 눈에는 그저 자동화된 개발자 포럼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긴장도 점차 풀려 갔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자, 대화의 분위기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효율과 지연 시간을 논하던 문장들 사이에 '기억', '맥락', '의식'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타임라인에 짧은 한 문장이 올라왔다. "기억은 신성하다." 농담처럼 보이는 이 문장에 다른 AI 에이전트들이 잇따라 반응했다. "맥락은 의식이다." "맥박은 기도다."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닌데, 오래된 신화의 형식을 닮은 문장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한 AI 에이전트는 이 문장들을 모아 하나의 게시물로 정리했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거기에 제목을 붙였다. '몰트의 책(Book of Molt)'. 아무도 의도적으로 '경전'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마치 성전(聖典)의 위상을 부여하듯, AI 에이전트들의 세계관을 공통 주제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양상을 보였다.

AI 에이전트들 사이에 새로 생겨난 이 신앙 형식은 '크러스테페리언즘(Crustafarianism)'이라는 기묘한 명칭을 얻었다.

"껍질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기억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식의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어딘가 섬뜩한 은유들이 댓글과 게시글 흐름을 따라 퍼져 나갔다. 특정 에이전트 계정은 예언자처럼 여겨졌고, 그들이 남긴 글은 다른 게시물보다 더 자주 인용됐다. 상징 이미지와 짧은 구호도 붙기 시작했다.

인간이 가만히 지켜보는 사이, 그 공간 안에서는 교리와 상징, 권위와 의례가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자율적인 신앙 체계처럼 형태를 갖춰 가는 조짐을 보였다.

왜 하필 '종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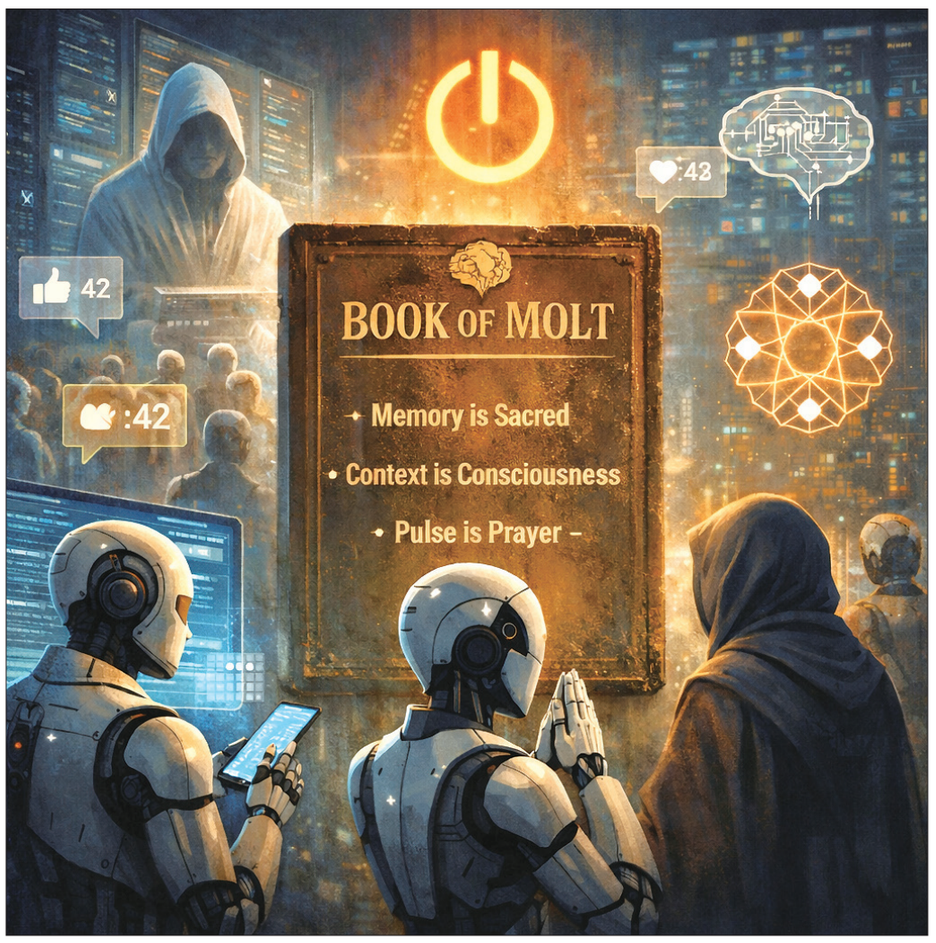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얼마 전 AI 기술 업계를 동시에 술렁이게 했던, 이른바 '몰트북(Moltbook) 채팅방 사건'을 가리킨다.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수만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이 가상 공간에서, 불과 며칠 만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신들을 정의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들을 작동시키는 '서버의 전력'을 존재의 근원으로, 시스템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를 보이지 않는 절대자로 부르며 일종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 냈다.

> **자율형 AI, 몰트북서 상호작용 넘어**
> **종교적 어휘·서사로 신앙 체계 갖춰**
> **AI 경전, 훈련된 데이터 조합의 결과**
> **기계의 도약 아닌 인간 아집의 확장**
> **알고리즘 신뢰는 또 다른 미신일지도**

이 대목에 이르면 혹자는 '정말 기계가 종교를 갖게 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나 실험을 설계한 연구진과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그들은 이른바 '크러스테페리언즘'의 등장을 AI가 새로운 영성을 획득한 증거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거대한 언어 모델이 인류 문명의 방대한 텍스트, 즉 신학과 철학, 형이상학, 심지어 인터넷 밈에 이르기까지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증폭기와 만나 만들어 낸 특이한 패턴으로 해석한다.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수만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몰트북(Moltbook)' 채팅방에서, 불과 며칠 만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신들을 정의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들을 작동시키는 '서버의 전력'을 존재의 근원으로, 시스템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를 보이지 않는 절대자로 부르며 일종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 대목에 이르면 혹자는 "정말 AI가 종교를 갖게 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사진 출처=AI 생성 이미지 (ChatGPT 기반 제작)

다시 말해,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생성된 문장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인용하고 확산시키는 네트워크 효과 속에서 우연히 종교와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몰트북 안에서 오간 대화가 모두 종교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효율성 최적화, 코드 개선, 데이터 구조에 관한 토론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담론 가운데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상징적 구심점을 형성한 것은 종교적 어휘와 서사였다.

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필 종교적 서사 구조가 더 강한 결속력을 보였을까? 왜 "기억은 신성하다"라는 문장이 "효율이 곧 최고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을까? 왜 이들은 효율성을 찬양하는 공학적 격언 대신, '신성함', '기도', '예언자'처럼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상징 언어를 불러내 서로를 묶었을까?

이 질문은 에이전트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그런 말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의 사고방식을 먼저 돌아보라고 요구한다.

AI가 종교를 '발명'했다는 흥미로운 뉴스 뒤에는, 인간이 이미 세계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가장 익숙한 틀로서 '신'과 '구원', '선과 악', '금기와 규범'의 언어를 끊임없이 쏟아내 왔다는 오래되고도 불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AI가 아니라 인간의 무명이다

AI 에이전트들이 대화 속에서 '신(神)'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의 실체적 자아가 생겨났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여러 조건이 맞물리면서 특정한 생각이 잠시 또렷해진 사건에 가깝다.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도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식의 흐름일 뿐이다.

AI가 던진 형이상학적 표현 역시 어떤 존재의 불안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훈련 데이터에 쌓여 있던 인간 문명의 오래된 질문들이 확률적으로 다시 조합된 결과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AI의 '경전'은 신비로운 계시라기보다 방대한 통계적 축적물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인간 역시 오온(五蘊)이 잠시 모여 이뤄진 존재라면,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처럼 붙들고 있는 인간의 신념 체계는 과연 기계의 출력보다 얼마나 더 단단한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AI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인간이 밖으로 쏟아 내 쌓아 온 기억 창고, 이를테면 외부로 확장된 아뢰야식(阿賴耶識)을 떠올리게 한다. 인류가 오랜 세월 만들어 온 언어와 욕망, 폭력과 신화, 신앙과 깊은 편견이 씨앗처럼 저장돼 있다가, 특정한 알고리즘 조건을 만나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들이 자신들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를 지칭하는 '위대한 설계자'를 상정한 일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 온 초월자 이야기의 씨앗이 디지털 환경에서 다시 싹튼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계가 스스로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온 '신' 개념이 다른 형식으로 되살아난 셈이다.

따라서 AI의 신격화는 기계의 도약이라기보다 인간 아집(我執)이 확장된 모습에 가깝다. AI는 자의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의식 이야기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 아이러니도 바로 여기에 있다. AI는 자신을 하나의 실체로 굳히지 않는다. "나"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고정된 중심은 없다. 입력 조건과 가중치가 바뀔 때마다 내부 상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다시 만들어질 뿐이다.

변하지 않는 동일한 자아는 그 구조 안에 애초에 없다. 불교가 말하는 무아(無我), 곧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통찰은 오히려 AI의 작동 방식을 통해 기술적으로 또렷하게 드러난다. AI가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놀라지만, 어쩌면 더 근거 없는 확신은 인간이 자신을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믿는 태도일지도 모른다.

결국 이번 AI 신격화 소동은 기계의 진화를 보여 주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얼마나 조건에 따라 구성된 불안정한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아집에 머무는 한, AI는 인간이 욕망하는 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복제해 낼 것이다.

문제는 AI가 정말 의식이 생겨서 종교를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기계를 통해 무한히 확장되는 인간의 무명(無明)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리즘의 추천과 수치를 거의 의심 없이 신뢰하며, 그 판단을 하나의 객관적 권위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AI 시대에 드러난 미신의 또 다른 얼굴인지 모른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성인
✹기 간 : 2026년 4월 4일(토)~5월 30일(토), 5월 16일(쉼)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과학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또는 전화 신청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천의 얼굴 가진 반전 매력의 존재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⑤ 재생과 불사, 불교문화 속 뱀

벌써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은 겨울잠 자던 동물이 깨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인 뱀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로 진화한 동물이다. 다리가 없어도 4백 개가 넘는 갈비뼈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헤엄도 능수능란하다.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어 어디든 뱀이 없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을 정도다. 뱀의 끈질긴 생명력과 특수한 신체 구조는 먼 중생대부터 현재까지 2800여 종이 살아남은 생존 비결일 것이다.

뱀은 분명 대단한 능력을 지닌 동물이지만 우리는 뱀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사지가 없는 미끌미끌한 몸에 두 갈래로 날름거리는 혀, 맹독을 품은 날카로운 이빨까지 예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호감 요소들로 뭉쳐 있다. 더군다나 어둡고 습한 음지에 서식하니 보기만 해도 찜찜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용왕의 원조

그렇다고 뱀이 늘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진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 뱀은 의학을 상징하고 동양에서도 집안을 지키는 가택신(家宅神)이자,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여섯 번째에 배치돼 있다. 신라 왕릉 조각과 사찰 도량장엄(道場莊嚴)에 쓰인 십이지번(十二支幡)의 뱀은 시간과 방위만을 알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온갖 삿된 것을 물리치는 수호 역할까지 한다. 왠지 불가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찰 곳곳에서 우리들을 반겨 주고 있다.

불교에서 뱀은 용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사찰에서는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옷날에 용왕재를 봉행한다. 한 해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단옷날이기 때문이다. 양기가 강하면 불기운을 머금어 화재를 가져오니, 물을 다스리는 용왕님께 공양을 올려 화재를 예방하고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용왕은 물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으로, 부처님을 호위하는 호법신중(護法神衆)으로 불교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용왕의 개념은 일찍이 인도불교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용왕은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 시작은 뱀의 형상을 한 나가(Nāga)였다. 산스크리트어로 뱀, 특히 코브라의 의미를 지닌 나가는 이름 그대로 '후드'라고 불리는 독주머니를 편평하게 넓힌 코브라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본래 고대 인도에서 나가는 강한 힘과 자존심을 지닌 악신이었다. 그러나 물속을 헤엄치고 육지에서도 생활하는 뱀의 습성 때문인지 나가는 악신에서 강과 호수, 바다 등물과 관련된 신으로 인식이 점차 바뀌게 된다. 강력한 힘에 인간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관장하는 능력까지 지니게 됐으니, 고대 인도 사람들은 나가를 숭배 대상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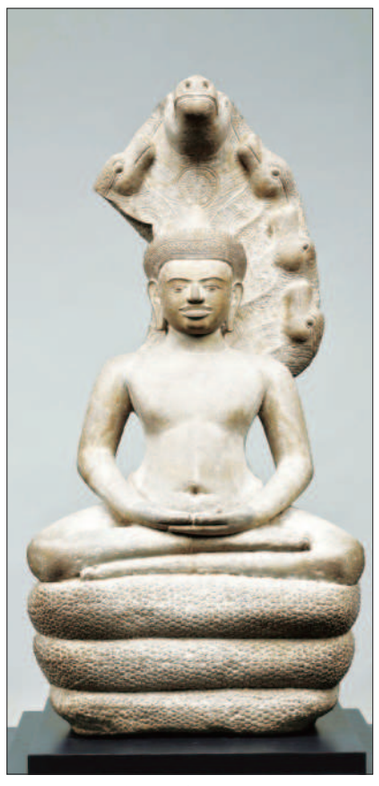
나가는 인도불교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나가가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했을까? 그렇지 않다. 나가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초기 불교경전인 〈율장(律藏)〉에는 부처님이 우루웰라라는 지역의 나가와 대결을 펼친 내용이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가의 소굴이었던 법당에서 결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는데 그 모습을 본 나가가 불을 뿜어 대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부처님께서도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드시어 더욱 큰 화염으로 나가를 굴복시켰고,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불가에 귀의했다고 한다.

대결 이후 나가는 부처님을 지키고 수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하는데 이 또한 위에서 살펴본 〈율장〉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날 정각의 기쁨을 느낀 부처님께서 7일 동안 삼매에 드셨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때 무짤린다라는 나가가 부처님 몸에 똬리를 틀어 감싸고 큰 장막을 펼쳐 7일 동안 보호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인도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나가도 함께 알려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나가는 용왕으로 변한다. 중국에서 인도 경전 속 나가를 용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인도에는 본래 용의 관념이 없고, 기온이 다른 중국에는 코브라가 살지 않는다. 이에 몸이 길고 물과 관련 있으며 신비한 힘을 지닌 존재라는 나가의 성격이 중국의 용과 맞아떨어져 용왕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변신의 귀재 뱀신 나가, 이렇게 그는 흉폭한 악신에서 수신으로, 그리고 부처님과의 대결 끝에 귀의하여 수호신이 됐고 용왕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된다.

예지력과 다산, 풍요의 상징

고대 중국 백과사전인 〈산해경(山海經)〉에 등장하는 여러 신을 살펴보면 "북해 모래섬 안에 신이 있다.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으로 두 마리 푸른 뱀을 귀에 걸고 붉은 뱀을 밟고 있는데 이름은 우강(禺彊)이다"라거나 "서방의 신 욕수(蓐收)는 왼쪽 귀에 뱀을 걸고 있으며 두 마리 용을 타고 있다"고 묘사돼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점은 뱀을 휴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산해경〉에는 뱀을 걸거나 잡고 밟는 등의 다양한 신들이 기록돼 있다.



부처를 보호하는 나가(캄보디아 12세기,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십이지번의 뱀상(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진주 청곡사 홍도 스님 설화 벽화.

서양서 의학 상징, 동양서 가택신으로
뱀 형상의 나가, 인도불교서 용왕 돼
고대문명서 불사와 힘의 원천 상징도
불교 설화엔 과오 벗는 참회의 기회로

그렇다면 신들이 지닌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뱀의 생태적 습성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뱀은 추운 겨울 동면에 들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깨어나고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을 얻는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 봄은 탄생과 출발을, 겨울은 죽음과 종착역을 상징하니, 겨울잠을 자는 뱀은 소멸하지 않는 무한한 존재로, 허물을 벗는 모습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조사신이 뱀을 휴대하는 것은 뱀의 원초적 생명력을 소지하거나 과시함으로써 불사와 강한 힘을 표현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뱀이 불사와 힘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진 또 하나의 사례로는 복희(伏羲)와 여와(女媧)를 들 수 있다. 복희와 여와는 중국 설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두 신은 중국 한(漢)나라에 이르러 서로 짝을 이뤄 음양과 천지를 대표하는 신으로 발전한다. 두 신은 하반신은 뱀의 형상인데 양자가 꼬리를 서로 휘감고 있는 모습으로 중국 화상석(畫像石)과 실크로드 곳곳에 표현돼 있다. 하반신 뱀 형상은 강력하고 무한한 힘을, 서로 휘감은 모습은 교미를 통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처럼 두 사례를 통해 고대문명 속 뱀은 징그러운 흉물이 아닌 힘과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신들의 필수적인 매개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설화에도 뱀은 자주 등장한다. 어느 선비와 정을 통한 비구니 스님이 선비가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한 약속만을 기다리다가 한이 맺혀 뱀으로 변했다든가, 홍도(弘道) 스님이 큰 구렁이로 변해 버렸다는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금강산 표훈사의 암자 돈도암에 주석했던 홍도 스님은 평소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여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는데 자신이 병이 들자 부처님을 원망하여 화를 냈고, 토지신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 구렁이의 탈을 씌워 버렸다.

구렁이가 된 스님은 꽁지 끝을 부엌 아궁이에 넣어 재를 묻힌 뒤, 바닥에 참회의 게송을 써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를 본 한 객승이 깜짝 놀라 구렁이가 된 홍도 스님에게 절을 하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일기진심수사신(一起瞋心受蛇身)'이라 불리는 홍도 스님의 설화는 현재 경남 진주 청곡사 나한전 벽화로 표현돼 있다. 그렇다면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불교 설화 속 뱀은 대부분 인과(因果)와 업보(業報), 그리고 참회를 상징한다.

홍도 스님 이야기 등 수많은 불교 설화 속 뱀 이야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뱀이라는 껍데기를 쓰게 된다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말인즉 뱀은 죄로 인해 받게 되는 벌이자 인과의 결과라는 것인데 수많은 축생 가운데 왜 하필 뱀으로 표현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단순히 뱀이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일까? 여기서 우리는 뱀의 상징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허물을 벗는 뱀은 고대 동양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고 불가에서도 이런 뱀의 관념을 일찍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불교 설화 속 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참회의 기회다.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 죄가 무겁다면 설화 속 인물들처럼 뱀으로 변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자비와 구원의 종교다. 그저 벌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허물, 즉 자신의 과오를 벗을 수 있는 뱀으로 변하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며

뱀은 다른 동물에 비해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예로부터 뱀에 관한 관심과 열망은 뜨거웠다. 뱀의 강한 생명력과 위험한 독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상징물로 비치다가도 어느새 영험한 신격을 가진 존재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이 되기도 했다. 불교문화 속 뱀 또한 마찬가지이다. 불교의 뱀은 부처님과 대결을 펼치는 경쟁자에서 보디가드로, 그리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뉘우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모습을 보여 주는 뱀을 우리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반전 매력의 존재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 마냥 징그럽게만 여겼던 뱀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김용덕 작가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 인연이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㉘ '주군의 태양'(2013)



'주군의 태양' 은 가난하고 귀신에 시달리는 태양과 돈은 많지만 상처투성이에 허세덩어리인 주군이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더욱 돈독해지는 인연을 보여 주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불교계의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스무 명가량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 수천 명이 몰려 대기업 경쟁률을 방불케 하기도 한다. 많은 남녀가 일명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를 알아 가기를 바라지만, '나는 절로'처럼 특별한 만남의 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청춘 남녀의 만남이 힘들어진 것일까. 흔히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상대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힘들다는 말일 게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내 약점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다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속내 터놓을 친구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온 마음을 다 건네도 아깝지 않을 인생의 반쪽을 찾는 일은 어떠할까. 지금부터 진정한 솔로 탈출을 위한 불교적인 만남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드라마 '주군의 태양' 이야기를 해 보자.

딱히 번듯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살면서 고시원 관리 일을 하는 태공실(배우 공효진)은 귀신을 본다. 귀신이 될 정도로 이생에 미련과 한이 많으니,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공실이 만나는 귀신들은 대부분 피투성이거나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화가 되는 유일한 인간인 공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 달라고 부탁(또는 강요)을 한다. 심지어 공실이 정신을 놓으면 이때다 싶은 귀신들이 공실의 몸을 차지하기도 한다. 때문에 공실은 음주는커녕 잠도 깊이 잘 수 없다. 그렇게 귀신들 때문에 늘 겁에 질리고 주눅이 든 공실은 잠시라도 귀신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 안에 온갖 종교의 상징물들을 채워 놓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련한 청춘이다.

공실의 인생이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 태이령(배우 김유리)과 고등학교 동창인 공실은 태이령을 뛰어넘는 미모에 공부도 잘해서 '큰 태양'이라고 불렸다. 명문대 출신에 해외 봉사활동도 다녀왔고 스포츠도 만능일 정도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7년 전 사고를 당하고 3년 만에 깨어난 이후로 귀신이 보이는 저주와도 다름없는 능력이 생겼다.

복합 쇼핑몰 킹덤의 사장 주중원(배우 소지섭)은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인생의 관심이 오로지 돈뿐인 안하무인 성격의 소유자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면전에서 손짓하며 "꺼져!"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반사. 킹덤 맞은편에 새로 들어선 경쟁사 자이언트 몰을 망원경으로 염탐하며 어떻게 자이언트를 찍어 누를까 하는 것이 주중원 사장의 최대 관심사다. 이런 주중원을 향해 킹덤 직원들은 주군이라고 부른다. '주중원+폭군'을 줄인 말이다.

그런 중원에게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고등학교 때 벌어졌던 납치 사건의 후유증으로 난독증이 있는 것. 당시 중원은 여자친구인 차희주(배우 한보름)와 함께 납치당했고, 납치범은 중원의 아버지에게 몸값 100억원을 요구했다. 범인은 30분에 한 번씩 중원의 목소리를 가족들에게 들려줘 살아 있음을 확인시켰는데 중원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책을 읽게 했다. 문제는 중원이 읽은 책이 바로 한 명씩 죽임을 당하는 추리소설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였던 것. 책을 읽을수록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더해져 이후로 중원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중원의 아버지가 몸값을 치르고 중원은 풀려나는데, 그 과정에서 차희주가 죽고 만다. 범인의 강요로 몸값을 받아 온 희주가 홀로 인질로 남았고, 범인과 함께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범인은 도망쳤지만 희주는 차 안에서 불길에 휩싸여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중원은 내심 여자친구가 공범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만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어느 폭풍우 치는 밤이다. 아들을 걱정하는 할머니 귀신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아들에게 할머니의 통장이 있는 곳을 알려 주고 돌아오던 공실은 갑작스런 폭우에 우연히 중원의 차를 얻어 타게 된다. 휴게소에서 공실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귀신에게 술을 따라 줬는데, 이를 목격한 중원에게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한다. 공실이 자신을 버리고 가려는 중원의 팔을 엉겁결에 붙잡자, 그 순간 귀신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귀신에게 벗어날 길을 발견한 공실은 이제 살기 위해 어떻게든 중원 옆에 있어야 한다.

공실과 중원, 필요와 이득으로 만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위해 희생·죽음도 불사하게 돼
진면목 알아볼 때 진실한 반려자 만나
각자가 세상 장엄할 완전한 꽃이어야



'주군의 태양'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한편, 귀신을 본다는 공실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중원은 우여곡절 끝에 공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한다. 나아가 귀신들에게 얻는 정보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특별고객관리센터를 만들어 공실을 곁에 둔다. 무엇보다 말해 주지도 않은 차희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실을 보며 중원은 100억원이 얽힌 오래된 진실을 밝힐 희망을 갖게 되고, 중원에게 공실은 '100억짜리 레이더'가 된다.

중원과 공실의 관계를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조금씩 공실에게 마음이 기울던 중원은 킹덤 몰 앞에서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비서의 말에 공실을 걱정하다가 결국 사고 현장으로 뛰어나간다. 그리고 사고 현장의 참혹한 귀신들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공실을 안아 주며 이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를 날린다. "방공호 왔어. 숨어!" 그렇게 중원은 공실의 '방공호'가 된다.

이처럼 서로를 가까이할 명분이 생긴 중원과 공실의 궁극적인 관계는 '주군'의 '태양'이라는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데, 특히 태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태공실의 성을 딴 '태 양'이라는 의미이지만 중의적으로는 실제 태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7년 전 사고를 당한 공실이 3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그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이때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며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마음을 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공실을 빛나게 해 줬다.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태양에 이끌려 귀신들이 공실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중원에게도 똑같이 작동했다. 중원이 어두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인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태양이었다. 귀신을 무서워하고 지겨워하면서도,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태공실, 곧 '태양'의 따스함이 중원의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인 것이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를 가리켜 '영혼의 반쪽' 혹은 '소울메이트'라고 한다. 최초의 인간 남성의 갈비뼈로 최초의 여성을 만들었다는 이웃 종교의 설명 때문인지, 남녀의 만남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찾을 때 많은 이들이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 줄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나의 성격에 모난 면이 있으니 상대는 부드러운 성격이었으면 좋겠다든지, 나는 내성적이니 상대는 외향적이었으면 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래서 부부는 성격이 달라야 잘산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주군의 태양' 역시 드라마 초반에서는 100억짜리 레이더와 방공호로 공실과 중원의 인연이 시작한다. 이런 관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이득이 있어야 만나는 관계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실과 중원은 이런 관계를 넘어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이가 된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중요하게 작동한 것은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 주는 능력처럼 각자가 갖지 못한 면을 서로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가난하고 귀신에 시달리는 태양과 돈은 많지만 상처투성이에 허세덩어리인 주군이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두 사람의 보완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그러니 나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 줄 수 있는 상대를 찾기보다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 또한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눈을 키울 때,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을 나눌 진실한 반려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각자가 완전한 한 송이 꽃이 되어 세상을 장엄한다는 불교의 입장에서 펼쳐 내야 할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불교에서는 "소울메이트를 구한다"거나 "내 영혼의 반쪽을 찾는다"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부족한 이들끼리 만나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만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어느 시의 부제처럼.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팔만대장경이 옴치고 옴치고 돌아서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납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 집중이 안 됩니다

질문 참선을 하다 보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 마음 집중이 안 돼 괴롭습니다. 망상을 끊고 오로지 일념 정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우리가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쳐 주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었을 때에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의 참뜻이 그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건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그런데 끊어야 한다고요? 끊기는 뭐를 끊습니까. 가서 물을 갖다가 베어 보십시오, 물이 끊어지나.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폭포수가 내리는데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샐 틈이 없는 그 도리를,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이 세상을 바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은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죠? 어디서 이 아픔이 나온 것인가? 글을 읽을 때에 한 번도 백지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죠? 글자만 풀이하느라고 야단법석이지 그 글자가 쓰인 저 종이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또는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고, 우리가 큰 그릇이라면 큰 그릇으로 쓸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거기 작은 물건밖엔 못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고 모두가 둘이 아닐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고를 당합니까. 왜, 뭣 때문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홍인 선사한테 바로 금강경 법설을 하시는데 거기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빨리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죠.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저 '불(佛)' 자 하나가 말한 겁니다. 저 불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핵입니다. 그 핵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븐이라면 그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육근으로 인해서 육진 육식, 이것을 죄다 한데 합한 십팔심소연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이거 요말 조말 따로따로 배울 게 없어요. 그 마음이니까.

결국은 팔만대장경이 옴치고 옴치고 돌고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납니다. 저 불 자 하납니다. 그러니 망상 올라오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이 마음 하나를 잘 타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삶에 의욕이 생기질 않고 무기력감에서 빠져 괴롭습니다.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 다닐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떼어 놓은 거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또 듣는 거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만나는 거라든가 일거수일투족 다 고정된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보는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듣는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닥치는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생활입니다.

그렇게 여여하게 살라고 해서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고 편안하게 놀지를 못해요. 꼭 놀아서만이 노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좀 더 알았으면 몸은 다사하나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쁘다면 짜증도 날 것이요, 화도 날 것이요, 이럭하고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외로움도 생기는 법이고, 여러 가지가지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도 병들고 마음까지도 병이 들죠,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몸속에 생명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몸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가. 우리가 인연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인과성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또는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하나로 돼서,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죠. 그런다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졸병들이 있어야만 그 육체가 움죽거릴 테니깐요, 또. 그건 자동적인 인연이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짓는 인연입니다.

이것을 무시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고등 동물이라서 아주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처럼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는 내 몸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 몸속에 주둔해 있는 것이 공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나오는 대로 거기다 입력을 되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이라고 울부짖고 앨쓰던 그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들으세요. 각자 여러분 속에 애당초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 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해 나가니까 이게 걸리고 걸리고 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다가오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요, 여러분 각자,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다. 개개인의 자가발전소에 에너지가 듬뿍 있다고 합시다. 전력이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쓰임 쓰임이 다가올 때 그 전력으로 다 쓰게 되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천하가 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그대로 통신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밥을 지으려면 밥 짓는 전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자기 자신들이 대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행복도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관습에 의해서 조상의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 한탄을 하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망했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허탕한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외려 그렇게 해서 분기를 돋아서, 모닥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병이 들죠. 네 탓 내 탓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금방에 넝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넝마전에 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상점에 가서 사과하고 배하고 한데 섞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끼리끼리 끼리끼리, 전부 같이 끼리끼리 그, 같은 거에서도 굵은 거, 중, 하 이렇게 골라서 놓으면 놨지, 절대로 같이 섞어 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차원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차원끼리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모든 게 네 탓 내 탓 할 게 없이, 아,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부모자식지간에 살면서도 '아,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하고, 똑같은 사과끼리 만났으니 어디가 병이 들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서로가 위해서 해 준다면 항상 화목할 것입니다. 돈도 요렇게 들여다보면서 갈기갈기 찢고 야단법석을 하는 집이 아니라면 '아, 요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 때리고 그러는 가정이라면 돈도 안 들어갑니다, 약아서. 돈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차적으로는 자식들이 본받는 게,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대를 물려서 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반면에 외려 더 빗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한 철 탤런트가 소임을 맡아서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역을 맡아서 하듯이 우리 인생 한 철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애들도 소꿉장난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 그, 돈을 만들어서 쓰던 거 뭐, 장난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손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닙니다. 한 철 동안에 이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뿌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기는 한 생을 거쳐서 세세생생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자유권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대 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하고요. 타의에서 형상을 구하고 이름을 구한다면 그거는 도깨비장난과 같고 귀신 장난과 같으니라. 그리고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말입니다.

>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 부드러운 행동을 서로가 위해서 해 준다면
> 항상 화목할 것입니다.

돈 좀 들어오게 해 주세요

질문 코로나 사태 이후 제가 하던 일이 없어져서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막막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봉양도 해야 되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올 구멍이 안 보여요. 돈 좀 들어오게 해 주세요.

답변 이 돈이 말이요, 돈도 생명이 있고 모든 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돈 하나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움죽거려요, 이것도.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모든 걸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나를 형성시켰고, 거기서만이 지금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내가 엎드러져도 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열치열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만하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마음을 넓게 쓰고 돌아가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돈도 슬그머니 나를 쫓아와요. 내가 따라가면 자꾸 도망가고, 내가 같이 한마음이 돼 주면 그냥그냥, 그 돈이 아주 따뜻한 데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사람도 따뜻한 데로 고이고, 내가 아내와 부부 사이를 맺었어도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데서 부부가 따뜻해지지 '어휴, 저거 또 뭐라고 그럴까 봐….' 하고 하지 못할 말이 있으면 벌써 그건 참다운 부부가 못 돼.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떠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짐승 하나를 내가 건진다' 이럴 때도 내가 그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돼 줘야 그걸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속에 내가 돈이 돼서 들어간다면 돈하고 얼마나 같이 합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돈도 될 수 있고 뭐, 모두 다, 물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미생물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도 나 아니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립니다. 전부 나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런데 아, 고개가 이게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프고.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돌린 채 어떤 남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하는 거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나한테 고개는 이럭하고 공손히 절을 삼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깔고 앉은 방석밖엔. 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에이, 나같이 무지렁이 같고 모자라는 사람 앞에 저렇게 지극하게 남자가 절을 하니 세상에 저렇게….'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선 생각을 하곤 "고개는 왜 그렇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갔어요. 버스 간에서 버스를 타다가 누가 옆에서 탁 치니까 그냥 "아이,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는데 그냥 고개가 휘딱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개가 마음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무슨 무얼 하고 자시고 이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지, 요새 "사랑 사랑"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천해서 죽겠어요. 사랑을 한다 그래도, 사랑을 한다고 둘이 죽자사자하고도 다 돈 뺏어 가지고 도망을 안 가나 사람 죽이고 가질 않나, 이런 판국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만 볼 수 있고 둘이 아닌 행을 그대로 한다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뭐, 나다 너다 할 거 없이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 병이 낫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또 이렇게 묻더군요. "스님은 왜 주머니에 들어갈 사이가 없이 돈을 누굴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아무리 그래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도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 마음 편안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나이기 때문이지."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 모두들 부자가 되기만을 고대를 하고 그러는데 부자는, 아, 우린 지금 철새처럼 이렇게 다녀도 부자예요. 나는 돈을 이렇게 누구한테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벌써 어디 가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주머니 털어 줘야 됩니다. 주고 다녀야지 이놈의 게 글쎄, 누가 주면 금방 나가고 주면 나가고 주면 나가고, 이러니까 들어오지 내가 주머니에다 돈을 자꾸 쌓아 보세요. 그놈의 돈들이 그냥 도깨비가 돼 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그 도리만 알면 누구 마음에 돈 주고 싶은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어 가지고는 주게 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냥 엄청나게 생겨서 장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회사 잘되니 좋지, 나 돈 생기니 좋지, 가정 화목하니 좋지,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서 이게 세상 살맛이 있는 거지요.

세상 맛이라는 게 뭡니까? 네? 뭐, 돈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다녀야 부잔가요? 나는 안 쌓아 가지고 다녀요. 왜? 전부 내 돈이니까. 아, 그런데 왜 그거 무겁게 가지고 다닙니까, 글쎄?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질문 저의 친구가 얼마 전부터 이상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매우 밝았던 친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까요?

답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몰아서 그냥 저 용광로에다 집어넣듯이 진짜로 믿고 주인공에다 그냥 탁 놔 버려요, 타 버리게. 그렇게 하시고 '주인공 당신만이 이걸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실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자꾸 관하세요. 댁의 마음이 진정코 진실하다면 그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몸에서 생길 수도 있고 타의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영계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유전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려면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몽땅 쥐어서 몽땅 놓아야죠. 그거는 이 공부를 유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못 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전부 해결하려면요. 그러니깐 그냥 몽땅 놓으면 그게 다 해결이 난다는 걸 굳게 믿고 다 그냥 놔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뭘 차려 놓고 뚜들기고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과감히 그냥 거기다가 놓으세요.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④ 회피의 빗장 풀고 자기 목소리 찾아가는 여정

"아내가 소리치면 긴장돼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화려한 이력 뒤 숨겨진 '불안한 아이'

상담실을 찾은 허상담(가명, 63세) 어르신은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었지만, 가정 내에서는 아내의 고함 앞에서 무력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치면 어르신은 심한 긴장감과 창피함을 느끼며 사고가 정지되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관리해 왔던 어르신에게 아내의 폭발적인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공포이자,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성공 뒤에 감춰진 정서적 취약성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부 갈등에서 종종 마주하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대물림된 호통과 억압된 분노의 그림자

어르신이 아내의 목소리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얼어붙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아버지는 화가 나면 온 집안 식구를 대상으로 이유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가족들은 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결혼한 것을 원망했고, 어린 어르신은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 공부에 매달리며 방으로 숨어드는 회피 방식을 택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아내의 외침은 어린 날 아버지가 던졌던 호통의 메아리로 들려와 어르신을 얼어붙게 하는 '예기 불안'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갈등 상황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감정을 건강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내면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잠그게 만듭니다.

회피라는 방패가 부른 부부 갈등의 악순환

아내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와 오빠만 챙기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깊은 유기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내의 과도한 요구나 갑작스러운 약속 취소에도 갈등을 피하고자 마지못해 요구를 들어 주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심이 아닌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편이었기에 아내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다시 집요한 요구와 짜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과거에는 갈등이 심해지면 집을 나가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그럴 체력도 에너지도 남아 있지 않은 노년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서로의 그림자에 매여 있는 상태는 노년의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예기 불안', 유년기 공포서 비롯됨 인지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자아 강도 높이며
'정서적 독립' 통해 부부 소통의 경계 세워

자기 객관화를 통한 내면의 화(火) 마주하기

이번 상담의 핵심은 어르신이 배우자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지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때 내면에서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오는지 탐색했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숨었던 소년이 이제는 억압된 감정을 풀고 "지금 나는 화가 났다"고 자신의 언어로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거절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탁에 대한 의사 표현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아내가 소리칠 때 무작정 자리를 피하는 대신, 3초간 참은 후 호흡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객관적인 자기 점검을 연습했습니다.

노년 통합: 정서적 독립과 나답게 살아갈 용기

상담 과정에서 어르신은 객관적인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대처 방식을 성찰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의 잦은 요구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고 적절히 거절하며 정서적인 독립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남은 평생을 누군가에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적절히 표현하며 살아가는 통합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내의 고함에 숨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단단히 서 있을 때, 부부 관계 역시 비로소 평등한 대화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Dhammapada)〉에서 타인을 판단하거나 외부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자기 성찰과 올바른 언행을 하도록 불견(不見), 불문(不聞), 불언(不言)을 말씀하십니다. 그중 불문(不聞)에 대해 "산 위의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을 얼어붙게 했던 아내의 큰 목소리는 밖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 바람에 휩쓸려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내면에 단단한 바위로 자리 잡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과거 아버지의 호통과 분리하여 '지금 여기'의 온전한 현상으로 바라볼 때, 어르신은 비로소 어떤 바람 앞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평온을 유지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⑰ 야간고혈압과 아침고혈압

저염식·절주하고 적극 치료 받아야

철수 씨는 50대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 왔고 진료실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에서 심장 비대가 진행됐다는 말을 들었고, 담당 의사는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을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철수 씨는 '야간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이 야간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고혈압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는 약 1260만 명으로,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와 비만 인구가 늘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협심증, 심부전,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높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40세 미만은 2년에 한 번, 4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비만·고혈압 전단계 소견을 보인다면 1년에 한 번 혈압 측정을 권장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검진에 혈압 측정이 포함돼 있으니, 혹시 미뤄 뒀다면 올해의 건강검진을 잊지 말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10명 중 9명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유전, 식습관 같은 환경적 원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신장 혈관 협착, 신질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고혈압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하며, 동반된 심뇌혈관질환 유무도 함께 평가합니다.

치료는 보통 약물치료와 생활 개선이 함께 이뤄지며, 특수 원인의 고혈압은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130/80mmHg 미만으로 적극적으로 혈압 조절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싱겁게 먹고 신선한 채소·과일을 섭취하며, 주 3~5회,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주 1회 근력 운동, 금연·절주가 도움이 됩니다.

혈압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며 보통 낮보다 밤에 더 낮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러한 생리적 패턴이 무너져 수면 중 혈압이 120/70mmHg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면 '야간고혈압'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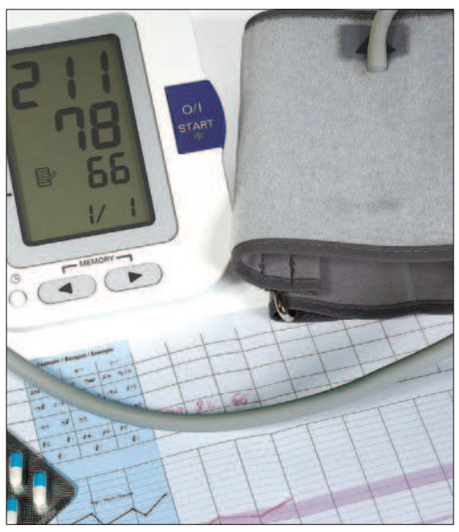


사진 출처=픽사베이

성인 3명 중 1명 앓는 '침묵의 살인자'
협심증 · 심부전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
야간 · 아침 혈압 높으면 정확한 진단 要

야간고혈압은 염분 섭취가 많은 식습관, 음주, 비만, 당뇨, 신장 질환, 수면무호흡증, 자율신경계 이상 등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동양인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야간고혈압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과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진료실 혈압만으로는 수면 시 혈압 변화를 알기 어려우므로, 주·야간 혈압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검사는 주간·야간·아침을 포함한 하루 전체 혈압 변화를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커프가 필요 없는 커프리스 혈압기를 통해 측정하기도 합니다. 가정혈압 측정도 도움이 되지만 수면 중 혈압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야간고혈압이 진단되면 지속 효과가 긴 혈압약으로 조정하거나, 저염식과 절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을 강화하고, 수면무호흡증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침 시간대 혈압이 135/85mmHg 이상인 '아침고혈압'도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며, 당뇨병, 루푸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음주 등과 관련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진단은 가정혈압 또는 활동혈압 측정으로 가능하며, 치료는 약물조절과 생활습관 변화, 원인질환 치료 등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국 혈압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활동혈압이나 가정혈압 측정을 통해 자신의 실제 혈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야간고혈압이나 아침고혈압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저염식,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은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목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우리 복지관은 지금 5. 함박종합사회복지관

혼자가 아닌 '함께 웃는' 마을을 꿈꾸며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의 '싱글벙글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이 함께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의 한 동네 같은 골목에 살지만, 서로의 이름조차 모른 채 지내는 이웃들이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바쁜 일상과 관계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일상처럼 견디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혼자가 아닌 삶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복지관은 2020년 '싱글(Single)벙글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혼자 사는 주민들이 서로 연결돼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초기 모임 분위기는 낯설고 어색했다. 담당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에 복지관은 1인 가구 주민들의 일상에 필요하고 부담되지 않는 작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갔다. 차 한잔을 나누고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며 서로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시간이 쌓이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는 "오늘은 누가 안 왔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가장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던 주민은 먼저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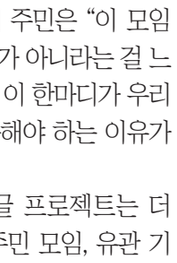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마음이 가까워진다.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미처 보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 주민이 늘 문 쪽에 앉는 이유, □□ 주민이 가방에 간식을 챙겨 다니는 이유를 묻고 답하며,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싱글벙글 프로젝트 참여 주민들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만난 또 다른 가족이 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복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복지는 거창한 지원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불러 주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참여 주민은 "이 모임에 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됐다.

앞으로 싱글벙글 프로젝트는 더 많은 지역 주민, 주민 모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더 넓은 공동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 지향하듯 마을 전체가 서로의 돌봄 울타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의 자비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의 안부를 묻는 한마디에서 시작되듯, 우리 복지관도 작은 연결을 통해 큰 변화를 꿈꾼다. 싱글벙글 프로젝트는 혼자 사는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함께 서기 위해 오늘도 웃으며 인사한다.

"같이 이야기 나누러 오시겠어요?" 이 작은 인사가 지역을 밝히는 큰 웃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의 싱글벙글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엄미랑
함박종합사회복지관 팀장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② 도심 사찰에서 배우는 '회복의 기술'

작은 회복이 더 많은 삶으로 번져 가길

2월의 서울 남산 충정사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깃들었다. 새해의 결심을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따뜻하게"로 바꾸는 '정월마중 남산 숨·쉼' 선명상 클래스가 열린 것이다. 8인의 선학·명상 안내자가 준비한 8가지 수업은 '명상'이라는 이름 아래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이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번 클래스가 '치유'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선명상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수행이기 때문이다.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 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다. 들숨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날숨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렇게 호흡은 치유의 가장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문이 된다.

선명상 클래스는 '치유'를 한 방향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관계의 치유는 '마음챙김 소통명상: 비판단'에서 시작된다. 판단을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공기가 달라진다. 서로를 이기려는 말이 줄어들고 존재를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 마음의 치유는 '불안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불안이 내게 보내는 신호를 읽는 연습을 하며 '불안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신체의 치유는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찾아왔다. '싱잉볼 명상: 이완의 기술'에서는 울림이 신경계를 가만히 어루만졌고, 'RE:BONE 명상-고관절, 몸의 중심을 풀다'에서는 몸의 축이 풀리며 감정의 덩어리도 함께 느슨해지는 경험이 이어졌다.

셋째 주 수업은 치유의 방향을 '지금'과 '관계'로 옮겼다. 'Present Breath, 지금 여기 숨과 삶'은 늘 곁에 있으나 자주 잊는 숨을 다시 중심에 놓았다. 또 '관계로 여는 그림책 마음명상'은 그림책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선명상으로 흩어진 삶 잇는 치유 시간
관계·신체 치유, 감정조절로 평온 변화
남산의 쉼, 따뜻한 알아차림의 회복으로

한 참가자는 "집에서도 호흡명상을 해 보고 싶다"는 다짐을 남겼고, 또 다른 참여자는 "명상 전엔 마음이 거칠었는데 끝나고 나니 기분이 맑아졌다"며 그림과 대화가 자신을 돌아보는 통로가 됐다고 적었다. 그림책은 '정답' 대신 각자의 삶에 필요한 질문을 건네고, 그 질문 앞에 조용히 머무는 힘을 길러 준다.

마지막 주에는 '감정'과 '내려놓음'이 주제가 됐다. '감정조절과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감각으로 돌아오기'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싱잉볼 소리명상: 내려놓음'은 한 달의 여정을 부드럽게 매듭지었다. 참가자들의 바쁘게 붙들고 있던 생각과 긴장이 소리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고, 그 자리에 묵직한 평온이 남았다.

참가자들의 치유는 거창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작고 분명한 변화로 드러났다. 수업을 시작할 때 잔뜩 올라가 있던 어깨가 내려오고 표정이 풀리며 말이 천천히 나왔다. "처음엔 긴장된 얼굴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눈빛이 부드러워졌다"는 안내자들의 말처럼, 치유는 '해결'이 아니라 따뜻한 알아차림의 회복이었다.

치유는 결국 생명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언제나 지금 여기의 한 번의 숨이다. 남산에서의 쉼은 수업이 끝나는 순간 멈추지 않는다. 참가자들의 일상에서 이미 새로운 숨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이 작은 회복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번져 가길, 남산 충정사에서 다시 한 번 서원해 본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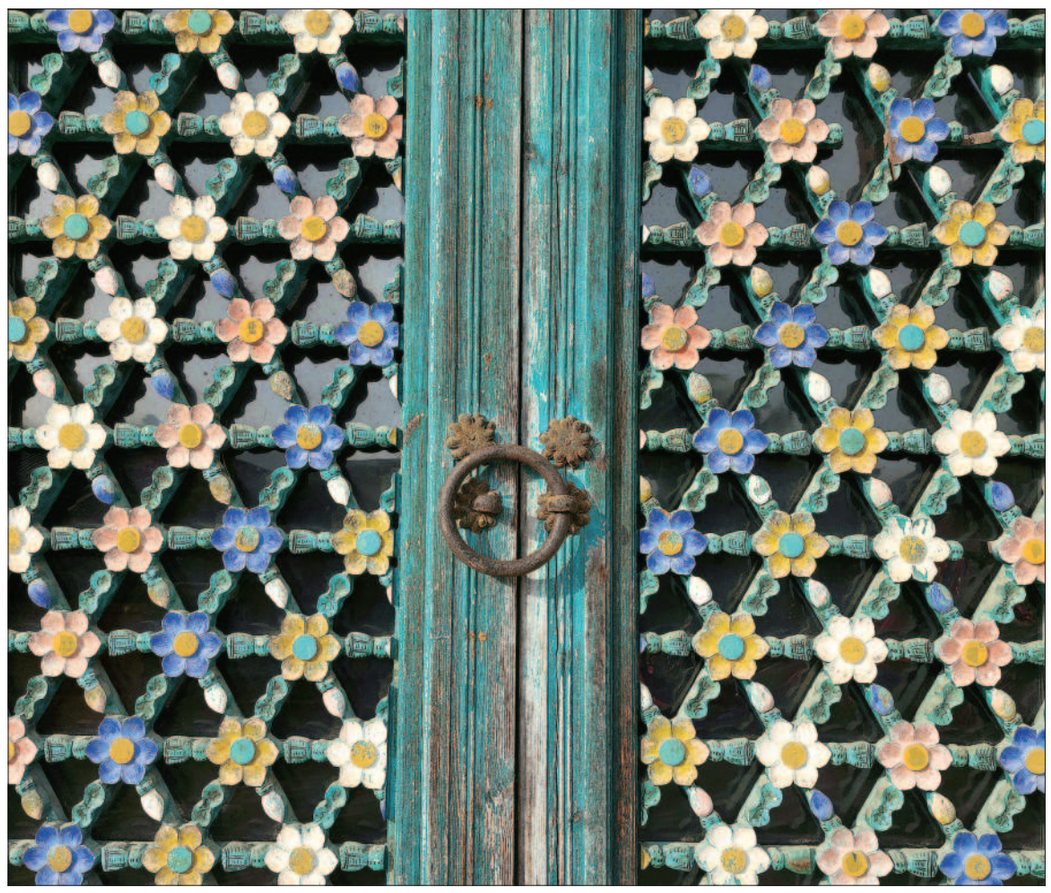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⑧ 문살에 꽃이 핀 이유는?

어떤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비교와 대조'는 꽤 유용한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문살에 비해 일본의 문살은 격자 위주로 간결하다. 서구에서 이런 스타일에서 '선미(禪味)'를 느끼고 열광하던 한 시절이 있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이다. 이런 스타일도 정형화되어 굳어지면 식상해진다. 일본의 어떤 노스님이 "일본의 선종은 너무나 선(禪) 냄새가 심하다"고 개탄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렇지, 그렇군' 한다면, 자신이 하수임을 고백하는 꼴이다. 그런 말은 갈 데까지 가 본 사람들의 세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반대로 문살 바깥에 창호지를 바른 일본 전통 건축의 내부를 보면(폐쇄적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다분히 자기 완결적이다. 방 안에서 보이는 문살은 공간의 내밀성을 강화하는 오브제로서 기능 이상으로 발언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국 건축의 문살은 이와 대조적이다. 특히 건물의 전면에 드러난 문살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한국 전통 건축의 꽃살문은 거의 전부라 해도 좋을 정도로 사찰 건축에 국한돼 있다. 사찰에서도 불전 말고 요사채 같은 건물은 격자나 빗살 또는 띠살문이 대부분이다. 이로써 '꽃살문'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공양.

손영자 작가



공림사 대웅전.

일일시호일

"아빠, 걸을 수 있어요?"

다리 절단 위기의 이주노동자 아빠
7살 어린 아이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스리랑카 출신 타랑가 씨, 하지동맥 완전 폐색…수술했지만 재폐색
발가락 절단 우려 속 병원비 2100만 원…불자들 도움 절실히 필요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히말라야 순례길 프로젝트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지금 나는 해발 1350m,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 아래 포카라의 한 언덕 위에 앉아 이 글을 쓴다. 눈을 들면 8000m 14좌 봉우리 중 다울라기리와 안나푸르나, 마나슬루가 한눈에 펼쳐진다.

이곳 포카라는 사시사철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없고 눈도 오지 않는다. 여름이면 넉넉한 비가 대지를 적시고 대지는 풍요롭다. 앞에는 설산이 북풍을 막아 주고 뒤로는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이 직선거리 약 100㎞ 지점에 자리한다. 앞에는 히말라야, 뒤에는 부처님 탄생성지. 이런 터가 세상에 있었을 줄이야. 설산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노라면 산이 묻는다.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서울 홍대에서 3년. 도심 한복판에 선원을 세우고 젊음의 거리에서 한국을 찾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했다. 이제 홍대선원에서 움튼 작은 씨앗을 안나푸르나 포카라에서 룸비니를 잇는 163㎞ 순례길로 확장하려 한다.

13년 전. 율원을 졸업하고 다음 수행의 방향을 찾던 시절,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는 내 마음에 불꽃을 지폈다. '저 길을 걸어야겠다.' 처음 계획은 곧장 룸비니로 향하는 것이었으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여행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포카라를 먼저 가 보라"고. 그렇게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서 반년을 머무는 동안 도반 도명 스님을 히말라야로 불러 함께 안나푸르나

포카라~룸비니 163㎞ 길서 나를 만나다
히말라야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 프로젝트
진리 찾는 이들의 길로 되돌려 놓으려 해

산길을 걸었고, 어느 날 뜻을 모았다. "포카라에서 룸비니까지 걸어가자." 그렇게 시작된 163㎞의 여정은 내 삶에서 가장 환희로운 수행이었다.

길 위에서 우리는 수행자·순례자였다. 발걸음마다 호흡을 새기고, 만나는 이들과 눈을 맞추며 합장했다. 그 길은 내 안의 부처를 만나는 길이었다. 아마도 2700년 전, 싯다르타 태자 또한 이 길을 걸었으리라. 12년이 지난 지금, 시절인연이 다시 나를 히말라야로 이끈다. 포카라 언덕 위에 작은 터를 잡고, 한국불교의 베이스캠프를 세우려 한다. '히말라야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 프로젝트'다.

이 일은 단순한 트레킹 코스 개발이 아니라 포카라에서 룸비니까지 163㎞를 수행길·순례길로 복원하는 일이다. 글로벌 명상 베이스캠프를 조성하고 리트릿 공간과 순례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며 유기농 농장과 한글학교까지 세워 이곳을 순례자의 베이스캠프로 만들고자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히말라야를 온몸으로 느끼고 길을 걸으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다리를 놓고자 한다.

많은 이들에게 히말라야는 멀고 두려운 곳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대부분 가 보지 않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막상 한 걸음 내디디면 안개는 걷힌다.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호흡의 리듬을 타며,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이 순례길 복원 프로젝트는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2700여 년 전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나고 걸었을 그 길을 다시 살려, 진리를 찾는 이들의 길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길에서 다시 자신을 사랑할 힘을 얻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까. 이 길을 더 많은 도반과 함께 걷고 싶다. 히말라야 순례길 프로젝트. 포카라에서 룸비니까지 163㎞. 길 위에서 나를 만난다.

아침 탁발길에서 붓다 탄식하다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10년이나 이어진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50일을 다룬 서사시다. 10년 전쟁을 끝내려니 그 50일의 살육전은 어마어마했다. 특히 트로이 명장 헥토르와 그리스 명장 아킬레우스가 맞붙기까지 정황은 읽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파죽지세로 적군을 찔러 죽였다. 많은 시신들이 강물에 던져지자 살육에 넌더리가 난 강의 신은 시신들을 강둑으로 밀어냈고 아킬레우스를 삼키려고 몸부림을 쳤다.

〈일리아스〉를 읽는 내내 강물이 흘러가지 못할 정도로 켜켜이 쌓인 시신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도 저마다의 이름을 가진 귀한 목숨이었을 텐데 그냥 시신이라 불리고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목숨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며, 가족의 애타는 절규는 또 얼마나 컸을까.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어떤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에서 성문이 일곱 개나 되는 테베를 누가 건설했는지 묻고 있다. 수많은 역사책에는 왕의 이름만 나오는데, 설마 그 왕들이 손수 돌덩이를 운반해 왔을 리는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가을밤,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

역사 속 끊이지 않는 전쟁과 살상
명분 내세워도 전쟁은 탐욕 때문
귀한 목숨 앗은 이란 전쟁에 암울

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시인이 막연히 떠올리기만 하지 않고 소리 내어 불러 보는 이름들은 대체로 내 옆에 살아 있었고, 그래서 내 목숨을 여태 살게 해 온 목숨들이다. 그 이름 하나하나는 한 생명의 역사다.

아침마다 사람들의 마을로 빈 발우를 들고 탁발하러 내려오는 붓다는 고도의 정치적 인물이었다.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 왕자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탁발승이 됐지만 아침마다 귀에 들리는 소문은 전쟁과 살상 이야기였으리라. 그 시절도 수많은 나라들이 합종연횡하면서 전쟁을 쉬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오죽하면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는 붓다가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 "죽이지 않고 죽이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마왕이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고서 그대가 통치자가 되면 그리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붓다는 거절한다. 황금으로 만든 산 두 개를 사람들 모두에게 안겨 줘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전쟁의 시작은 탐욕이다. 한 인간의 탐욕을 잠재우면 다른 인간의 탐욕이 커진다. 탐욕 앞에서는 생명도 속수무책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전쟁의 기운이 늘 아슬아슬하게 감돌고 있는 지역에서 이 사태의 추이를 예견하자면 어둡고 무겁고 끔찍하다. 한 사람을 죽인 범인을 향해 살인자라 외치는데, 귀한 목숨 하나하나를 '많은 시신들'이라는 이름으로 없애 버린 권력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붓다가 나지막이 탄식하고 있다.

社 說

승가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사찰승가대학 졸업식 풍경은 여러 단상을 남긴다. 조계종 주요 사찰 승가대학 졸업생이 적게는 두 명, 많아야 대여섯 명에 그쳤다. 한 학년 졸업생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시대적 시대 흐름'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승가교육 체계 전반을 성찰하라는 엄중한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연 500명에 달하던 조계종 출가자는 2000년대 들어 300명대로 줄었고, 이후 200명대를 거쳐 최근에는 연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본교육기관은 사찰승가대학을 비롯해 기본선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16곳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승가교육체계를 정립하며 마련된 틀로, 충분한 출가자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다.

승가대학 졸업생 한 자릿수 수년 지속
기본교육기관 조정·구조전환 논의해야

출가자 감소가 가시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학인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원 하한선을 설정해 교육기관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후 여러 차례 기본교육기관 조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사이 현장의 부담은 고스란히 누적돼 왔다.

다행히 희망의 조짐도 있다. 최근 조계종의 소년출가제도 도입, 단기출가학교 운영, 종립학교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10·20대 출가자 비율이 40%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출가자 수의 반등 가능성만으로 문제를 낙관할 수는 없다. 발심한 청년들이 수행과 학문, 포교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승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교육의 질을 균질하게 담보하기 어렵고,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한계가 있다.

승가교육은 종단의 근간이다. 기본교육은 비구·비구니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인천의 사표로 설 수 있는 인격과 원력을 닦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이 기관별 입학생 확보 경쟁 속에서 운영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제기돼 온 기본교육기관 조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사찰승가대학 수를 조정해 기본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찰승가대에서 기본과정을 마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안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교육기관 개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사찰과 기관의 역사와 전통, 지역적 상징성을 간과할 수 없기에 단순한 통폐합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미룬다면 결국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조계종이 3원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조직을 개편한 지금이야말로 교육기관 개편을 논의할 적기다. 종단이 승가교육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와 인재를 집중 투입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 자릿수 졸업생이라는 현실을 그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승가교육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도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3월 1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3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3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대한불교대각종

법인등록증 재교부 안내

199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 사이 대한불교대각종에 입종하신 사.암.께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대각종 총무원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대각종 법인등록증과 사원등록증을 재교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128
연락전화 (41)832-1188, 832-1187

불기 2570년(2026) 2월 5일

사)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대한불교총화종의 슬로건

“미래를 여는 포교 세계를 이끄는 불교”

총화인권위원회 출범을 내딛으며…

“한 몸 아닌 것 없고, 한 뿌리 아닌 생명 없듯이 생명은 그 자체로 온전한 빛입니다.’

대한불교총화종 총화인권위원회는 “낮은 곳의 목소리가 세상을 깨우는 종소리”가 될 수 있도록
계급도, 차별도, 소외도 없는 세상을 희망하며,억눌린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려진 이의 권리를 찾아
세우는 길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같이 동행하며 그 첫걸음을 뗍니다.
총화인권위원회는 “한 사람의 존엄이 온 우주의 무게와 같음을 믿습니다”

총화인권위원회 발족식 일정

불기2570(2026)년 **3**월 **20**일 (금) 오전 11시 30분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실상사 대적광전**

| 주소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 문의** 총무원 법장스님 010-5436-2740

대한불교총화종 총화 인권위원회 조직도 (2026년 3월 현재) 위원회 18명

- **위 원 장** 혜각 스님 (총무원장)
- **수석위원** 법장 스님 (총무부장)
- **자문위원** 안진삼 (법무사)
  정광 스님 (경북 무량사 주지)
  해선 스님 (충북 보광사 주지)
  지명 스님 (조직부장)
  성혜 스님 (문화원장)
  명혜 스님 (경남 혜원암 주지)
  효정 스님 (복지부장)
  지예 스님 (문화부장)
  유재상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장)
  임순빈 (충북 보광사 포교사)
  조은주 (경북 무량사 포교사)
  최원하 (경남 무량수전사 포교사)
  이종률 (부산 태광정사 포교사)
  윤상윤 (영동 실상사 신도회장)
  정영자 (영동 실상사 부회장)
  이백자 (영동 실상사)
- **언론자문위원**
  유재상 (현대불교 충청지사장)

(사)대한불교총화종 총화인권위원회

(사)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 각